

월간 가든인 6월호

June 2015

Gardenin

특집
기사

고양꽃박람회 국립수목원 / Dr. Rabbit project



Gardenin Maintenance

정원사의 6월 정원관리

정원사의 일기

커뮤니티가든



Gardenin Plants

6월은 진정한 꽃의 계절

서울 고가도로에서 즐기는

'이색소품'

서봄과 정원식물 나들이



물사리 potentilla

Gardenin Culture

셀 에스코리알 수도원

플로리아정원

석축정원

재활용정원의 Craft



Gardenin Information

해외정원디자인의 Summer Course 정보 / 도서정보

ISSN 2288-1719



10,000원

잔디 잡초방제의 새로운 해결사!



syngenta

- 다양한 잡초에 적용가능한 광범위 제초제입니다.
- 락타이드 기반 제초제 효과적으로 방제됩니다.
- 잡초 발생 초기 뿐만 아니라 발생 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약효가 탁월하여, 약효 지속기간이 길습니다.
- 잔디(한국잔디)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주요대상작물 : 한국잔디

무료상담전화: 080-900-1114 | 상담전화 1588-3889

신젠타 코리아(주)
www.syngenta.co.kr

© 시본전역 표지판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표지판은 표시사항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연번과 순서 및 기타는 본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인본지용기름 및 기타 도우물신용은 연번에 따라



2014년 11월 조경박람회 전시후 올해 봄의 화살나무모습

CONTENTS

Gardenin Maintenance

- 4 Gardenin 정원사의 6월 정원관리**
초여름 장마의 할기정원 디자인과 관리법과 정원을 올바르게 하는 법을 익히며, 6월은 정원이 가장 풍성히 꽃을 보는 시기이며 정원사의 할 일도 많은 시기이니 하나씩 가든인과 함께하며 정원을 풍성히 만들어가는 계절
- 9 정원사의 일기 / 김시용**
낮이 가장 긴 하지를 맞이하는 정원사의 할 일은 정원의 초화류와 모종으로 심어놓은 텃밭 채소들을 어떻게 가꾸어 관리하는가를 알려주는 코너
- 12 커뮤니티가든 I / 김시용**
물우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협동조합 정원
- 15 벚꽃마을 II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중세 도시의 배경을 갖춘 마을로 춘장남을 중심으로 전문정원의 커뮤니티 정원을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의 전문적 테마 구성단지

Gardenin Plants

- 18 정원 속 (Genus) 보이네**
식물의 분류 중 속(GENUS)을 하나씩 배워가며 할기로 정원 식물들 건강히 키워가는 노하우도 배울 수 있는 칼럼
- 22 Special Issue / 6월은 진정한 꽃의 계절**
6월의 정원식물과 함께 혼식의 색상대비를 전문가가 이야기 하다
- 28 정원의 필수 선택 / 관목**
정원에서 인기 있는 최근 인기 관목의 이용과 특징을 꼼꼼히 설명하다
- 30 서울 고가도로에서 즐기는 '이색스풍'**
도심속의 선형공원의 봄 피크닉
- 32 서분과 정원식물 나들이**
여인의 눈에 피친 여름꽃의 볼거리는 어떤 식물인가? 예비 꼬마 정원디자이너가 반한꽃은?

- 34 생초 국제조각 꽃잔디 정원**
가야시대의 땅에 꽃잔디로 정원을 물들이며 도로변부터 방문객의 발길을 이끌다
- 40 복주머니꽃 / 이명호**
야생화 복주머니꽃(개불알꽃)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야생화 교실
- 42 강남콩/ 완완식**
토종 강남콩의 종류와 채소 정원에서의 필수품으로 알아가는 강남콩 가꾸기까지
- 44 산딸나무와 꽃 산딸나무 / 윤평섭**
최근 관목으로 인기를 얻는 산딸나무와 꽃산딸나무의 재배와 관리법 정보

Gardenin Culture

- 48 오도 / 칼라속 정원**
정원속의 색채를 하나하나 대변하고 식 재 디자인을 아주 명쾌히 익히는 전문 디자이너 정원사의 이야기는 늘 새롭게 정원을 꾸꾸게 만드는데...
- 52 프로젝트 작품 1, Dr. Rabbit project Vol. #1. / 김중보 작가**
공간 1,2,3 안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스토리를 만나는 비밀정원의 이야기는 ...
- 55 재활용정원의 Craft / 우정아 가든코디네이터 글**
- 56 고양꽃박람회 / 국립수목원**
자생식물의 채집과 종식의 정원을 설명하며, '수목원을 통하여 정원을 보다'라는 개념에서 확장하여 수목원속 정원의 소품 디자인도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선보인 곳에서 전달하고픈 전문인의 공간표현...
- 60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 / 손관화교수**
스페인인 마드리드, 과다라마 산맥의 동쪽 관광도시 속 정원의 형태와 주변도시의 정원문화의 형성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정원을 통하여 살펴본다...
- 63 빛과 그림자 / 최지현**
정원의 요소에서 빛과 그림자는 정원의 필수요소이고 식물의 식재에 주요 요인이지만, 디자이너가 보여주는 정원을 오래 살펴본 후 느끼는 잔디 위에 나타나는 나무들의 음영의 모습을 즐겨보자
- 66 석축정원 / 김세경**
일반 정원에 석축은 어떻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갈까? 정원디자이너의 섬세한 손끝을 이야기 하다
- 70 존 뮤어 트래킹의 정원세계 / 정수진**
정원사이지만 자연의 탄생을 위하여 항상 대자연의 방문을 놓치지 않으며, 대자연의 트랙킹에 나서다
- 74 정원의 스타일 / 서수현**
정원디자이너를 시작하기 전, 주인이 원하는 정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야 계획을 할 수 있다. 모던인자 자연스러움이 강조된 정원인지, 지금까지 정원 스타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스타일 분석을 해 본다.
- 76 플로리아정원 / 우정아**
경기도 광주 군지암에 위치한 부부 정원사의 정원은 하나씩 부부의 마음이 하나로 담겨가는 장소이며, 서로가 아끼며 정원의 길에 들어서는 곳이다.

Gardenin Information

- 80 정원디자인 Summer Course**
- 81 6월의 정원도서 소개**

Gardenin
Gardenin 월간 6월호

장미과 식물

Rosaceae

장미속의 관목을 통틀어 이르는 말



쌍떡잎 식물 갈래꽃류에 속한 과, 목본 또는 초본이며, 잎은 어긋나게 나고 이따금 마주나기도 하며 턱잎이 있다. 꽃은 쌍성이며, 꽃받침 통은 꽃받침과 붙어있다. 전 세계에 115속 3,200여 종이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미, 가시나무, 찔레나무, 뽕나무, 떡지꽃등 35속 207여 종이 있다. 과명은 Rosaceae이다. 높이는 2~3m이며 잎은 어긋나고 깃 모양으로, 5~6월에 담홍색, 담자색, 흰색 등의 꽃이 핀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서양권에서는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서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의 야생종과 이들의 자연교잡에 의한 변종이 재배되고 있었으며, 이때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걸쳐 주로 유럽 남부에서 많이 재배되었다. 이후 유럽인들이 청나라로부터 월계화(Rosa chinensis)의 품종들을 도입하여 기존 유럽 품종들과 교배시키면서 현대 장미 품종들의 기반이 잡혔다. 현존하는 것은 4,000여종이며, 해마다 200종 이상의 새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 장미의 향은 로마시대부터 부유층에서 부의 상징으로 소유하여 왔으며, 이때부터 유럽에서는 장미를 처음 수입하는 계기가 되면서 정원에 심는 시대가 열렸다.



장미관리

봄의 전정은 강하게

전정은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 내고 필요한 모든 가지에 높이를 맞추는 동시에 통풍이 잘되게 하여 병충해를 예방하고 좋은 눈만을 남겨두어서 양분을 집중시킴으로서 좋은 꽃을 피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나무 전체의 모양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나무 높이의 1/3분의 ~1/2를 잘라서 버리고, 새로운 가지가 가능한 한 외측으로 향해 성장하도록 전정하며 가지의 외측으로 발생한 눈을 선택해서 그 꼭 위에서 가지를 잘라, 꽃이 필 때의 나무의 균형을 주며 통풍, 채광 등의 조건에 유리하다.

1. 전정의 순서

- ① 시든 가지나 병든 가지, 마주보고 자란 가지, 부드럽고 허약한 가지를 자른다.
- ② 나무의 중심에 있는 복잡한 가지를 자른다.
- ③ 그 외에 충실하지 않는 가지를 자른다.

2. 전정방법

꼭 위의 5~8 mm의 위치를 깎의 방향과 평행하게 비스듬히 자릅니다. 전정에는 잘 잘라지는 전정가위를 사용합니다. 절단면이 깨끗하게 잘라지지 않고 부서리지면 그곳으로부터 사들고 병발생의 원인이 된다.

자르는 가지의 길이에 차이가 있어도, 모든 가지에 전정을 실시한다. 잘라낸 가지는 벌레 알이나 병원균이 부착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곧바로 태워 버리는 것이 좋다. 전정 직후에 석회유황합제 4배액으로 절단면은 물론 나무 전체와 지표에 살포한다.

3. 비료와 물주기

전정 몇일전 또는 직후에 추비를 주면 건강한 신초의 발생을 촉진한다. 나무 그루터기로부터 30cm 거리의 구멍이에 15cm 깊이로, 유기질비료와 잿묵 50g을 발효퇴비와 함께 준다.

* 분화장미도 전정 실시하는 시기임



장미는 정원에서 정원공간을 나누는 식재이며 당궁장미는 울타리로 사용



<참고자료> :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장미 <http://www.ares.chungbuk.kr/home/sub.php?menukey=669#>
<겨울장미관리보호> <http://blog.daum.net/rosefarm/5926584>



Rosa x odorata 'Indica Major'



Rosa chinensis 'Old Blush'



해당화(Rosa rugosa) 원종



찔레(Rosa multiflora)



Rosa albertii



Rosa albertii

6월의 정원관리

일반 화단관리

초화류, 관목줄기 주변에는 풍성한 꽃을 보기 위해 6월에는 계속적으로 3~7cm 정도의 퇴비로 멀칭을 해준다. 멀칭(Mulching)의 효과는 토양의 습기를 보존, 식물뿌리 보호, 영양공급, 식물 주변의 잡초 방지, 토양의 온도 조절등을 도와 나무, 관목, 초화류와 장미등도 주당 1인치의 수분을 공급받는다는 통계 수치도 나와 있다. 초여름 일반적으로 자연의 수분 공급량은 부족하므로 건강하고 풍성한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번 관수를 할 경우 한번을 주더라도 물을 흠뻑 주는 것이 좋다.



화단멀칭



나무밑 멀칭

Gardenin Tip

• 멀칭의 효과

- 1) 흙의 온도가 급작스럽게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한다.
- 2) 잡초가 왕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3) 수분이 급격하게 증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멀칭을 하기전 준비작업!!!

- 1) 우선 잡초 등을 제거해 흙을 깨끗히 정리해야한다.
- 2) 정리된 흙에 물을 뿌려서 흙을 적셔주는 것이 좋다.
- 3) 그 후 멀칭 재료를 골고루 뿌려주는 데 이때 파이프 관이나 배수관을 잘 체크해 놓아야 후에 멀칭을 뒤집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 멀칭의 재료

- 1) 거름 : 질소와 탄소의 영양분이 균형있게 들어있는 거름(인공)
- 2) 자연부엽토 : 자연 상태의 숲 속에서 발견되는 유기물의 천연거름(자연)
- 3) 인공부엽토 : 나뭇잎만을 모아서 만드는 거름(인공)

거름은 정원사의 비밀무기

서양 격언에 '거름은 정원사의 비밀무기'라는 말이 있다. 거름이 정원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고, 식물에게 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정원 일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정원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고, 이 단계가 지나가면 식물을 키우는 재미에 빠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거름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거름의 세계를 알아가고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큰 기쁨이 있다. 그래서 정원이 있다면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을 자리와 함께 한 귀퉁이 버려지는 것들을 아름다운 거름으로 만들어가는 거름을 만드는 장소를 권하고 싶다.

정원사의 정원관리 업무리스트

No.	리스트	봄		
		6	7	8
01	관목 & 덩굴정리			
02	농사짓기(계소과일종자발아)			
03	퇴비주기			
04	화단관리			
05	원예 업무			
06	정원 도구(수리·유지·보수)			
07	절묘하기			
08	조경 경관 디자인			
09	물 배기(잡초제거)			
10	병충해 관리			
11	식물영양 표찰 작업			
12	토양 분석 및 관리			
13	관수 시설 설치 및 유지			
14	나무 버팀대 설치 및 점검			
15	관수 공급			
16	총괄 관리 감독			
17	식재 심기 작업(춘추식)			
18	잔디작업준비(땃장)			
19	토양 분석 및 관리			
20	나무 버팀대 설치 및 점검			
21	총괄 관리 감독 (정원관리피드백)			
22	작업전 후 사진정리			
23	파종 시기 리스트 작업			



화단에 멀칭한 모습



개화후 정정필수

나무와 관목

5월 철쭉, 진달래, 연산홍등 화려한 정원의 관목들이 자태를 뽐내었다 이제 꽃이 진후 다음해의 꽃을 위해 특히 꽃이 핀 후의 전정 시기가 필수이고 시기가 지나 전정하면 내년 꽃을 보는 시기를 놓치므로 꼭 개화후의 정원관리도 잊으면 안된다. 그리고 모든 봄의 관목과 나무들의 꽃을 화수와 크기를 원하는 경우 작은 가지나 불필요한 가지는 깨끗이 정리해 주어야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죽은 잔가지를 어려워하여 잘라주지 않으면 병충해의 원인이 된다. 회양목, 산딸나무, 주목 등등은 가볍게 잔가지 전정을 해주면 새로운 가지를 유도하며 좋은 모습으로 정형적인 모양(shape)도 만들어갈 수 있다.

줄기꽃이, 삼목의 번식범위

숙지삼목(Hard wood cutting), 반숙지 삼목(Semihard wood cutting) 녹지삼목(green wood cutting)으로 나눈다.

- 숙지삼목: 1년생 가지를 10~20cm 정도 잘라서 삼목이 가능하다. 장미, 개나리, 포도, 쥐똥나무, 등나무, 버드나무, 모과, 편백, 향나무, 전나무, 소나무, 삼나무류등
- 녹지삼목 (green wood cutting) : 봄에 자란 새가지로 아직 충분히 목질화 되지않은 가지를 6월 하지를 전후하여 식물에 따라 9~13cm 길이로 잘라서 삼목하는 것을 말한다.

치자, 동백, 철쭉, 서향, 진달래, 사과, 살구, 복숭아, 벚나무, 국화, 제라늄, 다알리아, 베고니아, 다이안서스 (패랭이), 진달래, 카네이션, 금어초, 사철, 호랑가시나무, 가지나누, 장미, 수국, 부용, 매화, 남천, 산당화 등등

흑색비닐

멀칭재배에 이용하는 재료는 투명비닐과 흑색비닐을 이용하고 있다.

온도가 낮은 시기에 두 종류 모두 무멀칭에 비해 지온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투명비닐이 흑색비닐에 비해 효과가 높아 수량이 많아진다. 그러나 투명비닐로 멀칭을 하게 되면 아주심기 전에 제초제를 살포하더라도 제초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봄이 되면 멀칭을 하지 않은 것에 비해 잡초의 발생이 빠른 뿐 아니라 생장도 빠르기 때문에 봄 일찍부터 제초작업을 해야하고 제초하기도 힘들다. 잡초방제를 위해 투명비닐로 멀칭한 농가에서는 잡초의 대부분이 멀칭밑에 있어 제초제 살포가 어렵기 때문에 봄 일찍 멀칭 위에 흙을 덮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투명비닐의 장점중의 하나인 지온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삼가야 한다.



영양식물 클라텐티스도 지지대를 이용하여 줄기가 잘 성장하도록 채소모종후 성정되어주기를 해야한다.



토마토의 줄기도 정리해야 굵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목 전정후의 모습



양면으로 흑색과 가운데 투명비닐을 이용한 비닐 멀칭의 효과



배란도 고추도 지지대 설치와 가지정리가 필수

잔디



주기적으로 잔디를 깎아서 모양을 유지해 줘야 하며, 조금씩 자주 깎아주는 것이 좋다. 반달모양 칼을 사용하여 가장자리를 예쁘고 깔끔하게 다듬을 수도 있다.



진출입로의 잔디를 더 깔끔하게 깎아주어야 방문자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다.

잔디 문제해결

이끼가 문제가 된다면, 비료와 이끼제거제를 함께 주면 됩니다. 선택성 제초제를 뿌리던 잔디나 그라스 그리고 구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야생화나 경계 식물에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syngenta 신변타 코리아(19)

스티제라 영양제

봄의 개화 활착 & 성장
균형잡힌 식물 영양분
경엽처리, 관주처리 가능



정원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영양분.
봄의 식물에게 필수영양제!

성분

스티제라는 동물성 플라센을 가수분해 과정을 통해 생성한, 유리아미노산과 크고 작은 펩타이드로 구성된 유기질 복합체이다.
(유리아미노산, 아미노산, 펩타이드, 유기 질소분, 암모니아태 질소, 질소, 유기탄소, 회분, 수분)

기능

저온, 물부족 또는 과염류에 의한 스트레스부터 안정화 저항 조직의 생성으로 세포벽 강화, 화분 수정을 향상.
뿌리, 줄기, 잎그리고 꽃의 성장 촉진.
질소를 보관하는 천연 저수지와 같은 역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유도

장점

작물에 쉽게 흡수되는 영양소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적은 에너지를 소모
아미노산을 공급해 줌으로 엽록소의 합성이 용이
영양생장을 촉진, 발근 촉진시키는 옥시신을 생성
강력하고 조화롭게 뿌리와 줄기, 잎을 발달

syngenta 신변타 코리아(19)

모뉴먼트

특징과 이점

- 다양한 잡초에 적용 가능한 광범위 제초제이다.
- 띠 등 문제 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한다
- 잡초 발생후 뿐만아니라 발아 전 사용시 예방 효과가 우수한 제품이다. (요소등지)
- 적은 소량으로도 우수한 약효를 발휘한다.
- 약효 지속시간이 길어서 오랜 기간 지속력이 있다.
- 한국잔디에 사용해도 잔디에 피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방제 효과가 뛰어난 사진비교

'발아 예방효과가 우수'하고 적은 소량으로도 우수한 효과와 긴 약효시간을 유지하여 추석이 되는 가을까지는 잡초와의 전쟁에서 해방되는 소식을 드릴 수 있다.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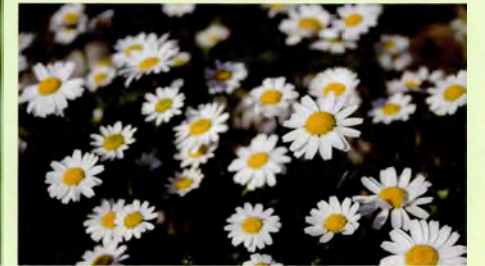
6월은 망종(芒種) 하지(夏至)가 들어가는 절기입니다.



점사꽃(Alcea rosea)

망종은芒(까끄라기 망)과 種(종자 종)으로 벼처럼 까끄라기가 있는 곡물을, 종(種)은 씨앗을 말한다. 이 시기가 까끄라기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 적당한 계절이란 뜻이다. 시기상으로는 9 번째 절기로 소만(小滿)과 하지(夏至) 사이에 들며, 양력 6월 5일경에 해당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75°일 때입니다.

하지는 夏(여름 하)와 至(이를 지로 북반구에선 낮이 가장 긴 날)이다. 하지에 정오의 태양도 가장 높고, 일사(日射) 시간과 일사량도 가장 많다. 북극지방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으며, 남극에서는 수평선 위에 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시기상으로는 10 번째 절기로 망종(芒種)과 소서(小暑)의 사이에 들며, 양력 6월 21일에 해당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90°일 때입니다.



Anthemis arvensis marina baixa

관상정원(Omnamental Garden)

6월에 꽃이 피거나 관상 가치가 있어 정원에 쓸 만한 식물들을 소개합니다. 다른 식물도 많이 있지만 꽃시장이나 묘목시장에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초본류로는 붉은 꽃이나 흰 꽃이 피는 점사꽃(Alcea rosea), 노란색 꽃이 피는 안췌미스(Anthemis sp.), 흰색 붉은색 노란색 등 다양한 꽃색을 가지고 있는 금어초의 원예종(Antirrhinum cv.), 흰색 파랑색 노란색 등 다양한 꽃색을 가지고 있고 자연 교잡이 잘 일어나는 매발톱꽃종류(Aquilegia cv.), 흰색 배경에 점들이 박혀있고 종모양으로 꽃이 피는 초롱꽃종류(Campanula sp.), 식물의 모양이 단정하고 꽃은 옅은 노란색으로 피는 대극과의 종류(Euphorbia sp.), 보통은 흰색으로 꽃이 피지만 이 원예종은 분홍색으로 꽃이 피는 안개꽃(Gypsophila elegans 'Rosea')와 분홍색으로 꽃이 피는 페튜니아 원예종(Petunia cv.), 옅은 분홍색으로 꽃이 피는 점사꽃종류(Malva moschata), 노란색으로 꽃이 피는

는 루드베키아(Rudbeckia fulgida), 노란색으로 꽃이 피는 미국미역취(Solidago serotina), 자분홍색으로 꽃이 피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자라는 양의 귀(Lamb's ears)라는 보통명이 있는 석잠풀종류(Stachys byzantina), 짙은 분홍색으로 꽃이 피는 석잠풀종류(Stachys officinalis), 옅은 분홍색으로 꽃이 피는 석잠풀(Stachys riederi var. japonica), 발강에서 노란색으로 꽃이 피는 한련화(Tropaeolum majus), 노란색으로 꽃이 다닥다닥 피는 우단배뽕종류(Verbascum nigrum)가 있습니다. 목본성 덩굴성 종류로는 꽃이 화려하고 덩굴성으로 자라는 으아리 원예종(Clematis cv.)이 있습니다.

목본류는 자색으로 꽃이 피고 잎 또한 자색을 띤 안개나무의 원예종(Cotinus coggygia Royal Purple), 파랑색으로 꽃이 피는 산수국(Hydangea serrata for. acuminata), 노란색으로 꽃피고 영국의 식물원 Hidcote Manor에서 선발한 물레나물 원예종(Hypericum 'Hidcote'), 분홍색으로 꽃이 피는 일본조팝(Spiraea japonica)이 있습니다.

섞어짓기 사례



1. 대파와 시금치

- 시금치에 생기는 해충은 대파를 싫어하고, 대파에 생기는 해충은 시금치를 싫어한다. 또 대파가 시금치의 시들병을 막아준다.
- 시금치의 초산(硝酸-발암성 물질) 농도가 낮아져 셀러드로도 먹을 수 있다.
- 시금치는 생자엽식물(생육인식물)이고 대파는 단자엽식물(외떡잎식물)이기 때문에 서로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다르고, 뿌리 주변에서 사는 미생물 종류도 달라 영양분 경쟁을 하지 않는다.
- 시금치는 그늘을 좋아하고, 대파는 햇빛을 좋아하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2. 상추와 양배추

- 양배추 옆에 상추를 심으면 도둑나방, 배추흰나비, 배추좀나방 같은 해충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같은 방법으로 해마다 기르면 점점 해충이 줄어들고, 자라는 데 적절한 온도가 같아져 서로 도움을 주면서 자란다.
- 양배추와 상추가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면, 흙 표면을 덮기 때문에 잡초가 안 나고 땅을 시원하게 해주어 잘 자라게 된다.
- 양배추는 삼자화과, 상추는 국화과로 각각 다른 영양분을 쓰기 때문에 땅 속 영양분 경쟁을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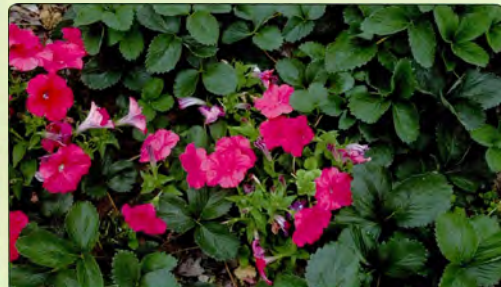
3. 대파와 오이

- 오이를 같은 곳에 해마다 심으면 덩굴췌장병이 생겨 오이를 못 키우게 된다. 하지만 대파와 같이 심으면 대파 뿌리에서 사는 버크홀데리아 글라디올리(Burkholderia gladioli)가 병원균을 막아주어 병해뿐만 아니라 해충도 덜 오게 해준다.
- 오이도, 대파도 뿌리에서 배설물을 땅 속으로 내보낸다. 오이의 배설물은 대파가 분해해서 쓰고, 대파의 배설물은 오이가 분해해서 쓰기 때문에 서로 잘 자라게 한다.



4. 토마토 + 망공

- 토마토의 저항성이 커지고, 병해충에 강해진다. 망공에 진딧물이 생기기도 하지만, 천적의 먹이가 된다.
- 망공은 콩과채소로 뿌리에 근류균(根瘤菌)이 살고,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시킨다. 이것이 이듬해 토마토의 영양원이 되어준다.
- 망공에는 근류균(根瘤菌) 말고도 균근균(菌根菌-식물의 뿌리에 사는 미생물의 총칭. 균근균은 식물의 뿌리에서는 흡수할 수 없는 화합물이 된 인산, 마그네슘, 철 등의 미네랄을 땅으로부터 분해, 흡수해서 식물에게 공급한다)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흡수하지 못한 미네랄을 땅으로부터 흡수해 토마토에 공급한다.
- 토마토 뿌리와 망공의 뿌리가 잘 맞기 때문에 땅 속 미생물들이 풍부해진다.



5. 당근(여름) + 콩(메주콩, 검정콩)

- 콩은 당근의 해충인 호랑나비를, 당근은 콩의 해충인 노린재가 못 오게 한다.
- 콩은 꽃이 피기 전에 날이 건조하면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데, 당근이 콩 포기 아래 그늘을 만들어 결실을 좋게 한다.
- 콩 뿌리에는 균근균(菌根菌)이 살고,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해 당근을 잘 자라게 한다. 또 균근균(菌根菌)도 있기 때문에, 식물이 흡수하지 못한 인산이나 철 등 미네랄을 땅으로부터 흡수해 당근에게 준다.

6. 딸기와 페츨니아

- 딸기는 꽃가루받이를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페츨니아 꽃에 모여드는 곤충들 때문에 딸기가 확실하게 꽃가루를 할 수 있다.
- 다양한 곤충들이 많기 때문에 해충이 줄어든다.



Anthemis tincto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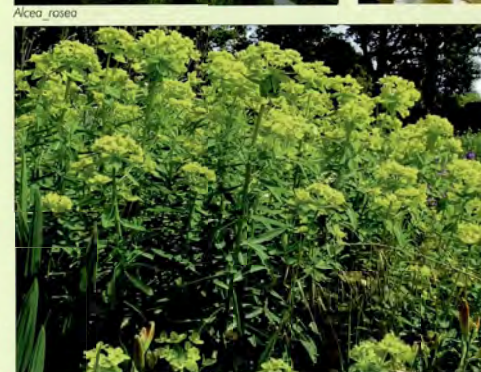
Snapdragon



Euphorbia



Alcea rosea



euphorbia



lamb's ear

마을정원 (Community Garden) 연재1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꽃이 만발하기 시작한 정원입구 전경.

사람과 빵 그리고 정원이 만나는 마을정원 (풀무학교 생활협동조합 정원)



정원 입구 쪽에서 바라본 6월 정원의 모습.

오전 11시쯤이 되면 빵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솔솔 불어오기 시작한다. 구수한 빵 냄새를 따라 가다 보면, 커다란 느티나무 한 쌍이 먼저 마을 사람들을 맞이하고, 하얀색의 꽃을 피우면 벌들이 수없이 모여드는 쥐똥나무가 서 있는 코너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너머로 풀무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풀무학교 생협)이란 이름의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풀무학교 생활협동조합 로고가 새겨진 간판.



이른 봄, 정원에 꽃들이 하나 둘 피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하나 둘 정원으로 나오고, 아이들이 노는 사이 어른들은 이야기가 편다.

정원의 역사

쥐똥나무와 빵을 굽는 풀무학교 생협 건물 사이의 거리는 약 20m정도. 그 사이에 120평 정도 넓이의 작고 아담한 정원이 있다. 이 정원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갯골어린이집)에 있던 '풀무식가공조합'이 1993년 풀무학교 생활협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때 정원도 새롭게 꾸며졌다. '풀무식가공조합'은 1977년 갯골어린이집 주차장에 작은 건물을 짓고, 오븐 하나를 들여 놓은 다음,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 주기 위해, 풀무학교 교사들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만들었다. 지금은 갯골유기농업농조합 법인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 빵 이외에도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과 가공품도 같이 판매하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아이들이 있는 집 엄마들과 지역에 사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아 모여든다. 특히 어린이집이 끝날 즈음에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정원 여기저기를 뛰어 다니며, 신나는 한때를 보낸다. 통나무 건축으로 지어진 목조 건물을 배경으로 펼쳐진 정원은 건물과도 잘 어울린다. 통나무 건물이 먼저 들어섰고, 본격적으로 정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이다. 풀무학교 전공부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일본에서 해마다 두차례씩 학교를 방문하는 카야마 미키(香山三氣)씨의 도움이 있었다. 카야마 미키(香山三氣)씨는 일본 게이센원예대학(恵泉園藝大學)을 졸업하고 조경회사를 운영하며 정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1년에 두 번 방문을 할 때 마다, 정원 곳곳을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예 강의를 한다. 2006년 이후, 이곳은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이면서 원예교육을 받는 교육의 장소가 되었다.



빵 만들 때 일가구가 되는 일이 자라고 있다. 토종일인 안은병이 일에서부터 스위스에서 가져온 일까지 다양한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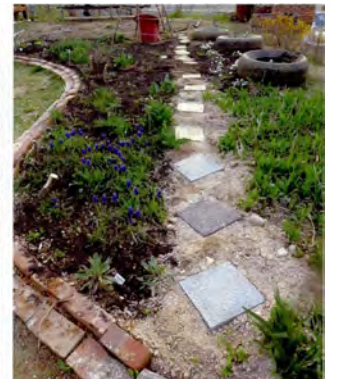
치킨트렉터 안에 있는 달에게 물을 틀어 먹이고 있는 아이들. 달과 토끼에게 꼭 빠진 아이들은 집에 갈 생각이 없다.



주변에서 구한 나뭇가지들을 이용해 아이들의 간이 침대를 만들었다. 나뭇가지 주변으로 덩굴성 식물을 심어주면 아이들만의 비밀정소가 될 것이다.



정원 한켠에 마련된 파굴라 침터와 치킨트렉터.



아이들이 화단을 밟지 않고 안전하게 저가거면서 꽃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과 식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이른 봄, 하나 둘 피고 있는 수선화와 카네이션.

물무학교 생협 정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빵을 굽는 터로 준비가 되고, 사람들이 빵을 사러 모이게 되고, 빵을 사러 온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꽃과 나무를 심다보니 이제는 마을사람들 모두의 정원이 되었다. 사람과 빵과 정원이 만나는 마을 정원 즉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이 실현된 것이다. 이제는 10년이 넘는 역사를 넘어 서면서, 마을의 아이들과 같이 자라는 정원이 되었다.



물무학교 생협 쪽에서 바라본 5월 정원의 모습.

교육과 연결하는 마을정원으로의 역할

여러 해가 지난 지금, 정원의 형태는 다양해 졌다. 지역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나와 텃밭 정원으로 일구기도 하고, 물무고등학교 학생들의 원예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물무학교 전공부 학생들이 정원관리를 배우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텃밭정원 맞은편으로는 허브정원이 있으며, 정원을 가로지르는 통로 옆으로는 빵의 원료가 되는 밀이 심겨져 있다. 빵을 사러오는 주민들이 밀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빵 만들기 교육을 할 때 가까이에서 밀의 생김새와 자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허브정원에서 자라는 허브는 허브 빵을 만들 때 건조시킨 후 가루를 내서 넣거나, 케이크를 장식할 때 이용된다. 허브정원과 연결된 또 하나의 정원은 숙근성의 꽃들이 심겨진 숙근초 정원이다. 숙근성의 꽃들은 한번 심으면 해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쉽고, 꽃 포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 풀이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뺏겨져서, 풀을 뽑는 수고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정원 한쪽에 치킨트랙터((정원에서 자라는 풀을 제초해주는 효과가 있음)를 설치 해 닭과 토끼를 같이 키우고 있다(닭과 토끼가 한 공간에 있으면 서로에게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한다). 닭과 토끼는 아이들이 풀을 뜯어다 주고 먹이는 과정에서 생명을 돌보는 감수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마을 정원사들. 향기가 좋은 붉은 인동을 진정하고 있다.



커뮤니티 가든, 벚꽃마을 현장 (경기도화성)

벚꽃마을의 주변환경 역사

경기도 화성(華城)은 수려한 경관과 가치 있는 유적지가 공존하는 중세 도시의 역사도 보존한 지역이다. 서쪽 지역으로는 해안가가 발달해 크고 작은 항구가 들어서 있고,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제부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은 낭만·체험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특히 궁평 낙조는 백사장과 해송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하는 풍광도 연출한다. 화성시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향토박물관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화성시의 유물과 옛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향토박물관에서는 고문헌들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40여 개의 조선왕릉 중 한곳으로 정조의 효심이 깃든 우리나라 대표적 효의 상징이다.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합장릉인 용릉, 정조와 효의왕후의 합장릉인 건릉이 나란히 위치해 있다. 왕릉 주변의 소나무 숲은 넓고 울창하게 잘 가꾸어져 있어 가족나들이 명소로 유명하다. 인근에 정조가 용릉을 보호하는 원찰로 지정한 용주사와 정조의 권농정책을 대표하는 만년제가 위치해 있어 둘러볼 수 있다. 주변에 용주사 말사, 신흥사는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의 말사로 서해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구봉산 당성(唐城)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벚꽃마을의 주변은 역사와도 함께하는 오랜 역사의 벚꽃으로 마을의 단지를 둘러싸고 있으며, 마을 아래에는 저수지가 만들어져 10여년전 마을의 환경보다 산수를 겸비한 주거지로 아름다움이 더해가는 산수를 모두 갖춘 풍경화वाद 같은 전원마을이다.

자료제공 : 벚꽃마을 촌장 송정섭 박사



벚꽃마을의 형성과정과 특색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내길에 소재하는 마을로 약 50년 이상의 수령된 벚나무 100주정도가 마을을 감싸고 있다. 1997년 5세대가 거주를 시작하면서 조용히 마을을 형성하였으나, 현재는 1~17호 집이 등록되어 있고 13세대의 주택으로 확대하면서 40여명의 거주자가 마을을 이루고 있다. 유치원생부터 70대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연령층 거주하며 다양한 직업군도 형성한 일반적 마을의 형태이지만 자영업, 조각가 등 예술가, 방송국 작가, 교수, 공무원, 회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로자는 정원을 살 속에 가까이 하는 공동체이다. 즉 마을 커뮤니티가든 조성을 이루어가며, 마을 주민이 공동 관리하는 공동화단의 크기는 150 평방미터 정도이다. 이 마을 진입로는 마을 커뮤니티가든 조성으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야생화 및 일년초화류 식재로 정갈하게 정리되었다.

3년 전부터 마을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커뮤니티 가든"의 전문가인 마을을 총장 송정섭박사의 전문적 식견을 이해하며, 4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야생화 및 일년초화류 식재를 해나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실습을 한 후 집집마다 특색이 있는 정원을 고려한 후 총장님의 '특색 있는 정원 만들기' 프로젝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봄 식재 후에는 1주간씩 각 주택마다 방문하며 관수 및 제초관리를 하며 학습 효과도 얻고 있다. 전문가를 모신 벚꽃마을은 아주 용이하게 프로젝트의 수용하여 총장님의 경험과 원예적 지식이 전문화 되어가는 마을로 모든 마을 주민이 함께하고 있다. 초보자의 정원사에서 이제는 디자인도 구성하며, 각자의 직업에서 얻은 재능이 정원에 도입하며 기대 이상의 훌륭한 정원사로의 입지를 다져가는 중이다. 벚꽃마을 입구의 공동화단 정리후 봄의 식재를 위한 공동화단을 위해 새 식재를 심고있다.



집으로 뒤돌한 입구의 왼쪽 도로변을 정리후 기와로 막아 두둑을 쌓은후 우리꽃에서 후원한 장기 개화 다년생 식물 "코레우리 미리"를 식재하여 11월까지 꽃으로 입구를 맞이할 예정이다.



이른 아침부터 공동 작업후 점심식사를 위해 모이고 있는 각 총장님과 회원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꽃 직원도 함께...



점심식사는 하는 어린이-어른까지의 연령층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가든의 공동체 봄 식재의 날

벚꽃마을 커뮤니티 가든 활성화를 위한 우리꽃 영농조합과의 협약식

경기도 화성(華城)은 수려한 경관과 가치 있는 유적지가 공존하는 중세도시의 역사도 보존한 지역이다. 서쪽 지역으로는 해안가가 발달해 크고 작은 항구가 들어서 있고,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제부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은 낭만·체험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특히 궁평 낙조는 백사장과 해송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풍경을 연출한다. 화성시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향토박물관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화성시의 유물과 옛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고문헌들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40여 개의 조선왕릉 중 한곳으로 정조의 효심이 깃든 우리나라 대표적 효의 상징이다.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합장릉인 용릉, 정조와 효의 왕후의 합장릉인 건릉이 나란히 위치해 있다. 왕릉 주변의 소나무 숲은 넓고 울창하게 잘 가꾸어져 있어 가족나들이 명소로 유명하다. 인근에 정조가 용릉을 보호하는 원찰로 지정한 용주사와 정조의 권농정책을 대표하는 만년제가 위치해 있어 둘러볼 수 있다. 주변에 용주사 말사, 신흥사는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의 말사로 서해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구봉산 당성(唐城)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벚꽃마을의 주변은 역사와도 함께하는 오랜 역사의 벚꽃으로 마을의 단지를 둘러싸고 있으며, 마을 아래에는 저수지가 만들어져 10여년전 마을의 환경보다 산수를 겸비한 주거지로 아름다움이 더해가는 산수를 모두 갖춘 풍경화도 같은 전원마을이다.



커뮤니티 벚꽃마을과 우리꽃영농조합의 협약식 현장은 마을주민이 모두 모여 정원의 기쁨과 공동의 작업도 나누고 즐기는 공동체를 재 확인한 시간이다.



송정섭 총장의 매년 봄마다 식재의 선정이 완성되면 마을내 약 500여종의 식물을 구상하고 있으며 '식물이 있는 식물원 같은 전원마을'의 완성을 기획하고 있다. 아직도 빈집이 있지만 각 가정별 정원아름도 명명해 나가며 마을의 공동체 가든의 활성화와 공동체 정원마을의 전문성을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2015년 4월 벚꽃마을과 우리꽃 영농조합은 협약식을 갖고, 올봄에 네덜란드 직수입한 백합 10종류와 다년생 코레우리 '미리' 그리고 가든엔씨앗 종자 100선을 후원하며 보다 다양한 정원의 초화류의 100선을 뿌리고 가꾸어 정원의 식재 종류를 꾸준히 확장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벚꽃마을의 특색은 집집마다 주제를 담은 정원을 명명하여 각 주택의 정원에서도 전문성을 고려한 활용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정원을 준비하고 있다. 아래의 정원 이름에서도 누구든 정원의 주제를 이해하리라 본다

* 원예원 (2호집), 음지원 (4호집), 초화원 (5호집), 키친가든 (6호집), 수생원 (7호집), 식용산야초원 (8호집), 소나무, 덩굴원 (10호집) 야생화원 (11호집), 약초원 (12호집), 키즈가든 (14호집), 정자원 (17호집)5

벚꽃마을의 공동체는 매월 정오시 자기집에 핀 꽃을 발표 및 공동학습도 나누고 있다.



잊지 못할 향기를 품은 누리장나무 속 (Genus Clerodendrum)

누리장나무는 나에게는 매우 추억이 있는 나무이다. 그 향기는 아련한 동심의 세계로 안내한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 자생하는 관목(Clerodendrum trichotomum)이 대표적으로 전세계에 분포하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체로 낙엽성, 상록수, 관목, 덩굴성 식물의 400여 종의 속으로 줄로 열대지방과 아열대지방의 삼림지,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다. 이들은 그 해자란 새 가지의 끝 혹은 측생의 가지 끝에서 다섯 갈래로 갈라진 꽃잎의 원통형 나팔모양이다. 수술과 암술이 길게 빠져 나와 향이 있는 흰 꽃의 취산꽃차례, 원추꽃차례, 산방꽃차례를 피워낸다. 잎은 윤생체로 되어 있거나 대생하여 짙을 이룬다.

사실 누리장나무는 향이 특이한데 사탕마다 취향이 달라 개동나무, 누른내나무 등으로 불리며 대체로 곱악한 냄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구수하고 특히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 누구나 먹을 수 없었던 어린이 영양제 상품명 "원기소"의 냄새를 기억하게 한다.

덩굴성 식물인 파굴라(Pergola)나 정자 혹은 다른 지지대가 있는 곳에 기른다. 추운 곳 서리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서리에 약한 종을 따뜻한 온실이나 재배실에서 기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덴드롬(꽃누리장)이라 하여 원예용으로 길러지는 덩굴식물이 있는데 반드시 겨울 온실재배를 하여야 한다. 대체로 이들은 양지와 약간의 음지에서도 잘 생육된다. 꽃도 예쁘지만 가을 가지색의 열매를 물은 듯한 다섯 갈래의 꽃받침의 빨간색 대비는 매우 아름답다. 정원수로서 적극추천 할 만하다. 혈압과 반신마비 그리고 관절염에 좋은 약재로 이용되는 것도 좋은 점이고 어린잎은 나물로 한다. 재배는 누리장 나무는 약간의 습윤지에서 잘 자라며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 번식은 주로 열매를 봄에 파종한다.

원예용으로 기르는 꽃누리장은 부엽토를 충분히 한 큰 화분에 심고 물을 자주 준다. 겨울에는 실로 옮겨 재배하고 물은 좀 줄여도 된다. 번식은 성숙된 새가지를 삽목하여 번식한다. 병충해로는 벚나무꼭지벌레, 응애와 흰가루 병이 발생할 수 있다.



누리장나무 (Clerodendrum)



군자란 속 (Genus Clivia)

상록성 다년생 식물로 5종이 있는 속으로 남아프리카의 개울의 근처에 있는 저지대 심림지에서 발견된다.

윤기 있는 두꺼운 잎이 마주보며 커켜이 자라는데 잎에 광택과 많은 무늬줄들이 있다. 꽃은 주로 주황색이지만 최근엔 흰색과 빨강색까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꽃은 굵은 꽃대에서 여러 개의 큰 꽃이 모여서 피는 산방꽃차례를 이루며 아름답다. 작은 종류의 속이지만 매우 사랑 받는 종류로 일반가정에서 하나쯤은 모두 재배할 정도로 재배도 쉽고 사랑 받는 꽃이다.

토양은 비옥하게 하는 것이 좋는데 낙엽 썩은 퇴비나 피트모스 혹은 거친 톱밥 등을 이용한다. 물은 좋아하므로 자주 주고 너무 건조한 것을 싫어한다. 실내에서도 잘 자랄 만큼 음지를 좋아 하는 식물이지만 밝은 창가에서 기르는 것이 좋고 가죽 질의 잎의 먼지 등을 간혹 닦아 주면 더욱 아름답게 기를 수 있다. 식물체의 유액은 피부 등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한다. 가을에 뿌리를 캐내어 죽은 뿌리와 너무 많은 뿌리를 손질하고 겨울에는 약간 건조하게 관리 후 2월부터 넉넉한 물과 영양제를 투여하여 관리하면 2-3월에 쉽게 꽃을 피울 수 있다.

주로 초봄에 분주를 하고 열매를 성숙하자마자 기온이 16-21℃일 때 파종을 한다. 벚나무꼭지벌레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덕 속(Genus Codonopsis)

주로 다른 식물에 길거져 자라는 덩굴성으로 대부분 여러해살이 풀의 30여 종의 속으로 히말라야부터 일본까지의 돌이 있는 산비탈이나 고산의 잡목이 우거지는 곳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에는 더덕과 소경불알, 만삼 등이 자생한다. 잎과 줄기, 뿌리 등 전초에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좋은 향으로 기억하지만 대체로 외국인들은 악취로 받아들인다. 다른 식물이나 줄기를 감고 오르는 덩굴성으로 꽃은 여름에 향아리모양의 총형으로 아래를 향해 달리고 꽃잎 안쪽으로 자주색의 무늬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원식물보다는 맛있는 채소로 더 사랑 받는다. 잎과 줄기 모두를 식용할 수 있고 토양은 물 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며 소경불알은 울통불퉁한 모양의 강자와 같이 둥근 모양이고 만삼은 가는 채뿌리와 같은 모양으로 별 맛이 없어 주로 더덕을 좋아한다.

밝고 비옥하고 부식도가 많고 축축하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밝은 태양이나 부분적으로 그늘이 진 곳에 기른다. 가을 혹은 봄에 육묘를 하여 심거나 재배지에 직접 뿌려 재배한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민달팽이와 달팽이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응애는 통풍이 잘되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된다.



은방울꽃 속(Genus Convallaria)

은방울꽃 속은 지하경을 갖는 다년생 식물로 3종이 포함된 속으로 북쪽 온대지역의 밝은 삼림지, 관목을 형성하는 곳이나 알프스산맥 초지에서 발견된다.

주로 우리나라의 은방울과 독일 은방울로 대표되는 데 우리나라의 은방울꽃은 주로 겨울빛이 잘 드는 활엽수 아래 혹은 초지에서 잘 자라고 이른봄 하얀의 꽃이 꽃대를 따라 아래를 향하여 총총총 달리며 피어나는 모습과 달콤한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 독일 붓꽃은 잎이 좀더 크고 꽃이 잎 위로 자라 피어나 우리의 산과 두 잎 사이에 감추어져 보일 듯 말듯한 한복의 맵시를 닮은 은방울과 대비 되는 점이 다르다. 최근 연한 핑크색의 품종도 사랑 받는다. 전원주택 등에서는 현지 야생 혹은 삼림지에서 채취하여 많이 기르기도 한다. 뿌리를 통해 번식되며 햇빛이 잘 드는 나무 혹은 관목아래에서 조금만 관리해 주면 지피식물로 표면을 금방 덮는다. 번식은 종자를 과육을 벗기고 가을에 파종을 하거나 뿌리를 개내 5-7cm 정도로 잘라 축축한 수태나 거친 상토에서 재배하면 이른봄 새싹을 틔운다. 특별한 병충해는 없지만 세균성 잿곰팡이병에 의한 피해가 있다



싱싱한 채소들과 향긋한 꽃이 모여 우리집 베란다에
오밀조밀 모여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상상을 체험을 통해 만들어내는 우리꽃 농장에
어린이 가족들이 모였다. 공원에 소풍 나온 듯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나와 흠뻑이하며
베란다 텃밭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베란다 텃밭 만들기

체험은 온실로 지어진 가든조아 체험장 안에서 이루어진다.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 정원에서의 체험도 가능하다. 체험의 시작은 오늘 심을 꽃과 채소들의 설명을 듣는 것이다. 토마토와 부추를 함께 심으면 부추의 향기가 벌레가 오는 것을 방지해주고 두 작물이 서로 필요한 영양소가 달라 함께 성장하기에 유리하다. 토마토도 따고 부추도 수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본다.

양배추와 상추를 함께 심어도 좋다. 채소와 꽃을 함께 심었을 때 아름다움과 함께 생애장점이 있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체험에 앞서 식물에 심고 옮기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시범을 본다. 그리고 바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식물을 제공한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흙을 만지고 풀 냄새를 맡는 어릴 적 경험을 되살려 본다. 체험지도사의 설명을 들으며 흙을 담고 식물을 심어나가다 보면 어느덧 가족이 함께 모여 만든 작은 베란다 텃밭이 완성된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꽃을 키우기 어려워하는 체험객들을 위해 쉬운 설명을 곁들이고 안내문을 첨부하여 당일 만든 텃밭을 수확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체험을 마치고 500여종의 꽃들이 자라고 있는 정원을 구경하는 것은 덤이다. 베란다 텃밭 만들기 체험과 함께 다양한 원예체험들은 사전 문의 후 신청자에 맞춤 진행된다.



가든조아

문의전화 031-712-7009 / 팩스 031-634-7991
gardenjoa777@naver.com
교육후기 gardenjoa777.blog.me



Special Issue

6월은 진정한 꽃의 계절

겨우내 삭막했던 정원은 봄이 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면서 한껏으로 반가운 미소를 보인다.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기 시작한다. 그 오랜 기다림으로 인한 반가움에서 인가, 우리는 간혹 봄에 많은 꽃이 피어나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정원으로 보아서는 봄은 겨우내 기다림속에 시동을 거는 계절이다. 예열된 봄을 지나 6월이 본격적으로 꽃을 볼 수 있는 진정한 꽃의 나래를 펼치는 계절이다. 6월, 우리의 정원, 한가득 꽃미소를 보내주는 정원식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무늬꽃창포

수줍게 꽃망울을 터트리는 초롱꽃을 앞쪽에 두고 보라색 꽃을 활짝 선보이는 꽃창포. 아니 그냥 꽃창포가 아니라 앞에 하얀 줄무늬가 선명한 무늬꽃창포. 꽃이 매우 선명하고 아름다우며 꽃이 진 다음에도 잎의 무늬가 좋아 가을까지도 좋은 소재. 일반적인 꽃창포와 같이 수변에도 사용해도 좋고 짙어진 잎의 형태와 잎의 무늬가 좋아 정원용으로도 효과가 좋은 식물이다.

2. 샤프타데이지 실버문

5월중순이면 샤프타데이지가 하얀 눈꽃을 피워낸다. 실버문은 뒤이어 5월말에 꽃대를 내밀어 6월이면 화사한 꽃망울을 피워낸다. 키가 작고 대가 튼튼하여 쓰러짐이 없어 정원용으로 안심맞춤이다. 특히 겹꽃으로 피는 꽃은 더욱 화사하고 중앙의 노란 꽃심과 하얀색의 꽃잎이 매우 잘 어울린다.

3. 아스틸베

노루오줌이라고도 불리는 아스틸베는 개량된 노루오줌이라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노루오줌은 우리의 나무아래 계곡주변에 자생하는 야생화이고 이를 개량하여 정원용으로 더욱 화려하고 아름다운 식물로 변신한 것이 아스틸베이다. 크게 화색에 따라 분홍, 하양, 빨강 등 품종이 다양하다. 수변식물로 이용하면 좋고 꽃이 크고 화려하여 아주 건조하지만 않다면 일반 정원용으로도 좋은 소재이다.

4. 몰리니아 & 갈풀 페세이

본격적으로 그라스들이 기지개를 펴고 위로 솟아오르는 계절이다. 직선형의 품이 좋은 몰리니아. 앞쪽으로 키가 작은 몰리니아 무여가 자리를 잡고 있고 뒤쪽으로는 키가 큰 몰리니아 하이드가 선을 뿜내고 있다. 사이좋은 형제처럼 몰리니아 형제가 앞뒤로 그린 깔끔한 느낌을 전달해준다. 그 사이로 하얀줄무늬의 갈풀 페세이가 또 다른 시원한 느낌을 전달해 준다.

5. 무늬역새 & 사포나리아 코튼

하얀색 줄무늬역새가 시원하게 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 앞으로 역시 몽실몽실 하얀색의 꽃을 피우는 사포나리아. 향기가 좋아 비누풀이라고도 불린다. 꽃이 질때쯤 한번 커팅해주면 새롭게 꽃대를 올린다.





6. 솔리다고 & 에키나 스노우

서양미역취라고도 불리는 솔리다가 진노란 꽃무리를 형성한다. 생육이 강하고 화기도 길어 좋은 소재이지만 옆으로 뻗어 나가는 성질이 강해 다른 식물과 혼식시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 노란색을 바탕으로 하얀색 에키나가 꽃망울을 터뜨린다. 노란색과 잘 어울리며 이국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에키나는 정원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정원식물이다.



7. 수레동자 & 펜스테몬 상록홍엽

주황색꽃이 모여 주먹형으로 탐스럽게 꽃을 피우는 수레동자꽃. 그 옆으로 윤기있는 적색의 잎이 좋은 펜스테몬의 하얀색꽃이 한창이다. 6월 기운을 받아 화색이 더욱 빛나며 6월의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다.

8. 꽃백합 나보나 & 숙근사루비아 화이트

무늬역새 한포기를 중심으로 5월부터 피기 시작한 하얀색 숙근사루비아와 한창이고 하얀색 꽃백합 품종인 '나보나'는 한송이 두송이 큰 잎을 벌리고 있다. 뒤이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꽃대가 탐스러워 보인다.

9. 코레우리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등등 각가지 색상을 뽐내는 코레우리 품종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군식해도 좋고 정원에 혼식용으로도 좋다. 꽃이 장기개화하므로 비료를 충분히 주고 1차 개화 후 꽃이 지는 7월초쯤 컷팅해주면 2주후 부터 다시 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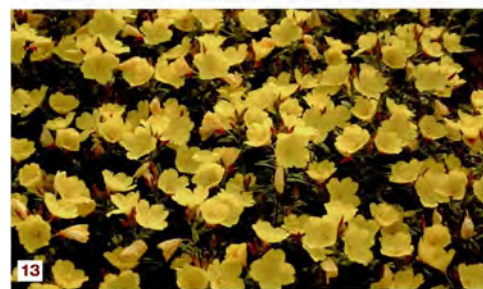
10. 달개비 블루

보라색 달개비 꽃이 한창이다. 난처럼 생긴 잎 사이로 하나씩 하나씩 꽃을 피워내어 어느새 큰 꽃무리를 이룬다. 양지뿐만 아니라 반음지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질때쯤 컷팅해주면 다시 한번 꽃을 볼 수 있다.



11. 잉글랜드양귀비

강렬함과 화려함의 진수는 역시 양귀비이다. 가을이나 이른 봄 파종한 뒤 5월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하여 6월 한창 절정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6월을 대표하는 빠질 수 없는 꽃이 양귀비이다.



12. 톱풀 비단 & 노랑에키나

앞쪽으로 빨간색 비단을 펼쳐보이는 톱풀 비단. 톱풀은 파스텔, 오렌지, 레몬 등 그 품종이 다양하다. 5월말부터 꽃을 피기 시작하여 6월에 만개를 한다. 그 뒤로는 노란색 에키나가 서로 앞다퉈 봉긋봉긋 솟아오르고 있다. 다른 에키나 품종보다 노랑에키나는 일찍 개화한다.

13. 숙근달맞이 황금

5월말이면 달이 떠올라 6월이면 화려한 달빛을 선보인다. 진노랑의 꽃은 정원을 화사하게 밝혀준다. 키가 알맞게 자라 쓰러짐이 없고 생육이 강건하여 잘 자란다.



14. 숙근사루비아 블루 & 초롱꽃 켄트벨

라벤다와 같은 느낌을 전달하는 숙근사루비아꽃이 한창이다. 뒤이어 초롱꽃 켄트벨이 한송이 두송이 꽃을 피내며 고급스런 자태를 뽐낸다. 전체적으로 블루톤의 색상이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한다. 특히 켄트벨의 탐스러운 꽃은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만큼 매우 아름답다.



15. 상록잔디패랭이

5월을 가로질러 6월에도 붉은 꽃가뱃을 선보이는 상록잔디패랭이. 봄부터 가을까지 장기간 아름다운 꽃을 수 놓는 상록잔디패랭이는 군식해도 좋고 정원의 앞라인식물로 이보다 좋은 패랭이는 없다.

16. 분홍조팝 & 꽃백합

관목으로 유명한 분홍조팝이 한창 화사한 꽃을 피우고 있다. 그 사이로 분홍조팝과 혼성식재한 주황색 꽃백합이 위로 얼굴을 내밀며 아름다운 앙상블을 이룬다. 분홍조팝은 꽃이 지면 한 번 전정을 해주면 다시 한번 꽃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7. 니포피아

금방이라도 하늘로 솟아오를것만 같은 이색적이면서도 강렬한 꽃을 가지고 있다. 군식해도 좋지만 정원에 포인트식물로 적용하면 매우 좋은 식물이다.



18. 초롱꽃 체리벨

종모양의 잘 익은 듯 빨간색 꽃이 아주 탐스럽게 피어난다. 금방이라도 한 잎 베어물고 싶은 아름다운 정원식물이다. 켄트벨, 웨딩벨 등 다른 품종과 함께 식재해도 좋다.



19. 꼬리풀 이브

자주색의 촛불형태의 꽃이 가지런히 피어나고 있다. 꼬리풀도 블루, 리틀블루, 핑크, 로켓, 나나 등 색상과 형태적으로 다양한 품종이 있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정원의 대표적인 식물이다.

20. 무늬새

위로 쪽쪽 뻗은 직선의 형태가 아름다운 무늬종 그라스. 또 하나의 장점은 억새 등 대부분의 그라스가 가을에 이삭을 맺는 반면 무늬새는 6월에 이삭을 맺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은 가을억새의 그 모습 이상이다.

21. 무늬키버들

멀리서 보면 마치 하얀색꽃이 만개된 듯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키버들 무늬종. 봄에 새순이 하얗게 나오면서 쪽 자라오르면 잎 자체로도 관상가치가 뛰어난 관목입니다. 잘 전정해주면 독립수로 또는 울타리용으로도 좋은 소재이다.

22. 붉은잎동자

일반 동자꽃보다 진한 주황색의 꽃과 적색의 잎이 잘 어울리는 동자꽃이다. 대체로 양지를 선호하지만 활엽수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꽃이다.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 화사한 정원식물이다.

23. 옥잠 블루문 & 골든티아라

나무아래 자리잡은 키작은 호스타 2품종. 마치 오랜친구처럼 오순도순 사이좋게 자리를 잡고 있다. 블루톤의 질감이 좋은 품종과 노란줄무늬가 좋은 2품종이 잘 어울린다.



관목(shurb)

우리의 정원에 적재적소에 알맞게 관목을 배치하는 것은 필수이다. 울타리용, 돌메지용, 포인트용, 덩굴용, 군식용 등등 앞으로 관목의 이용은 더욱더 폭이 넓어질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새로운 관목들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꽃과 색감이 좋은 관목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가든인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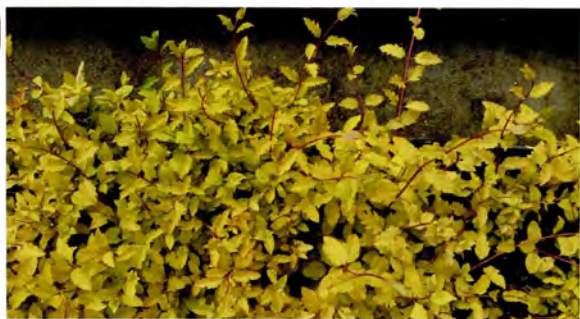
적엽병꽃나무

잎이 적자색인 병꽃나무로 잎 자체로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5월경에 적색의 잎사이에 병모양의 붉은색꽃이 피어나면 더욱더 강렬함을 느끼게 해준다. 독립수로 이용해도 좋고 군식해도 좋다. 무늬중인 무늬병꽃, 황금색인 황금병꽃과 함께 어울려 심어도 색감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다.



조팝 골든바

노란잎속에서 4월이면 하얗게 피어오르는 꽃은 매우 아름답다. 꽃이 지고나면 황금색잎은 가을까지 이어지다가 빨갛게 단풍이 들면 또한 멋진 경관을 자아낸다. 가정의 생울타리용으로 좋고 특히 도심의 피녹지용으로도 좋은 소재이다. 생육이 빠르고 강건하며 배수가 잘 되는 양지와 반음지에서 잘 자란다.



인동 해오름

인동은 클레마리스, 능소화 등과 함께 대표적인 정원용 덩굴식물이다. 인동 '해오름'은 기존의 인동과는 달리 잎의 색감이 좋아 봄부터 여름까지는 황금색이 가을에는 단풍이 좋은 인동이다. 벽면녹화용 뿐만 아니라 피복지 등에 지피식물로 이용해도 좋다.



눈분홍질레

포도송이와 같은 꽃은 마디마다 꽃이 맺혀 만개하면 온통 꽃담보를 형성한다. 생육이 강하고 순번음이 좋아 매우 빨리 자라고 덩굴장이 대용으로 꽃터널, 단장차배용으로 좋고 독립수로도 좋은 덩굴식물이다.

물싸리

생육이 강건하고 어디서도 잘 적응하는 물싸리는 꽃이 아름다운 관목이다. 품종에 따라서 화색이 다양하다. 암석가든용, 돌메지용으로 최고의 소재이고 특히 꽃이 좋아 정원에 적절하게 이용하면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붓들레야

요즘 정원에 빠질 수 없는 꽃이 좋은 대표적인 관목이다. 꼬리처럼 길게 피는 꽃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시원한 꽃을 볼 수 있다. 품종에 따라 화색이 다양하고 대형의 포기는 포인트형 독립수로 유리하다. 키가 1~1.5m 정도 자라는 왜성종이 정원용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또한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 피복지 등에 열식해도 좋은 관목이다.



황금향

황금색 잎의 질감이 뛰어난 수종이다. 특히 끝부분에 새순이 오를때 더욱 아름답다. 군식해도 좋고 포인트식물로 활용해도 좋다. 암석가든, 돌메지용으로 좋은 식물이다. 특히 겨울에도 상록을 유지하기 때문에 겨울 가든의 삭막함을 일정부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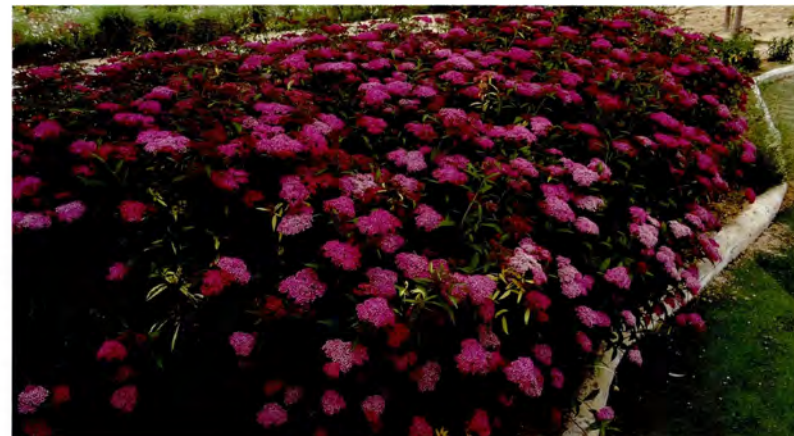
매자나무 핑크퀸

적색의 잎을 가지고 있는 매자나무 품종이다. 특히 잎에 호피무늬와 같은 무늬가 있어 더욱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피복지와 암석가든, 돌메지용으로 효율적인 적용이 가능한 관목이고 정원에 포인트용으로도 좋은 소재이다.



분홍조팝

키가 작은 조팝종류로 5월부터 아름다운 진분홍의 꽃을 피운다. 정원에 야생화들과 잘 어울리는 관목으로 경계용으로 이용하면 좋다. 일정하게 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컷팅하면 좋고 특히 1차 개화후 컷팅해주면 2차 개화를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관목이다.



사막한 회색도로위에 **녹색공원**이 펼쳐진다.

서울 고가도로에서 즐기는 '이색 소풍'

도시고가의 피크닉

지난 5월 10일 '고가에서 머물다: 봄소풍'이란 주제로 꾸며진 서울역 고가 임시공원이 문을 열었다.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차량을 통제하고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으며 납대문시장 상인들의 공원화 반대 시위와 고가도로 위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발걸이 엇갈린 가운데 서울시가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고가의 시민개방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렸다.

글/사진 박미양

도시속의 선형공원

박원순 서울 시장은 지난 임기 중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준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등 시민 참여형 공원녹지사업의 연속성은 특히 조경분야에 이목을 끄는 부분이다.

특히 서울역 고가도로를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High Line)같은 선형공원을 계획하여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하이파크라인'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이러한 선형공원은 도시공간과 접촉면이 많아 인접한 가로의 유동인구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외에도 생물이동통로로서 생태계 보전효과, 교통약자들에게 더 많은 공원 이용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도시들이 보행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서울역고가 공원사업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고가도로를 걸으며 "임기(2018년 6월) 내 서울역 고가 대체 도로를 완공하겠다"고 말하며 일회성, 행사성 보행거리에서 생활속의 전면 보행전용거리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강을 30여개의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한강 행복 몽땅 프로젝트', '사람중심의 보행친화도시화', '과실수 심기, 주차공원 조성'으로 녹색공약은 푸른도시 만들기 중심에 있지만 조경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정원월간지를 펼쳐든 박원순 시장



봄소풍날은 어린이 나비꽃(Grum) 사랑에 꽃 빠지다.



생태계를 보존하는 고가도로 녹지공간

서울시는 천개의 숲, 만개의 산책길을 추진하여 생활권 주변 10분거리 공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생애 주기별 힐링공원 조성, 서울둘레길, 근교산 자락길 등 '견고싶은 서울길', '우리동네 산책길' 등 생태 친화적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역고가 2차 개방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차로로 단절되었던 곳이 보행으로 연결되면 시민의 다양한 취미활동과 콘텐츠를 즐기며 지역의 재생과 경제 활력과 이어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하게 즐기는 소통의 장

봄소풍이란 주제와 어울리게 도로위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인조잔디와 돗자리에 앉아 완연한 봄기운을 만끽하기도 하고 길을따라 올라가다보면 이동책방과 신나는 디제잉, 싱그러운 색감으로 가득 채워지는 벽화 페인팅, 전시, 공연 등 먹거리를 제공해 이를 즐기는 시민들은 마치 봄소풍을 즐기는 연인, 가족들처럼 보였다.

또한 미리 접수한 신청자에 한해 화분만들기 체험을 통해 식물과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수직형 벽면 텃밭은 교통약자에게 친근한 눈높이로 관심도가 집중된다.



막상 걸다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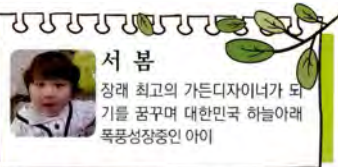
개방행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대체도로 없는 서울역고가 공원화는 지역경제를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날 4호선 회현역 일대와 납대문 시장에는 활기가 돌았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뉴욕 하이라인파크처럼 시민의 쉼터가 되고 소통의 장이 되는 점에서 공원녹지화에 희망을 걸어볼 만 하겠다.

앞으로도 이같은 축제를 비롯해 고가도로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친환경녹지공간이 되길 기대해본다.

서봄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화려한 덩굴식물 클레마티스



덩굴식물중에서 꽃이 아름다운 식물로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클레마티스(Clematis)를 이번호에 소개해 드립니다. 클레마티스는 현재 230여종 이상이 있고 상록성에서 반상록성, 낙엽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생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5월 정도에 개화가 시작되고요 클레마티스의 꽃은 크기, 모양, 색에서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륜종의 경우 화색이 다양하며 고급주택 등지에 좋습니다. 소륜종의 경우 울타리나 옹벽 등이 높은 곳에 이용하는게 좋은데요, 이들은 대체로 성장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중간정도의 크기를 가진 종류는 사계성이 많으므로 터널용 등에 유리하고요.



화색이 다양한 클레마티스 품종

클레마티스는 햇빛이 잘 드는곳에서 잘 자라고 주기적인 관수와 영양공급을 해주어야 생육이 좋습니다. 토양은 비옥하고 부식토가 풍부한 땅과 약산성에서 잘 자라고 이들을 식재할 때는 다른 종류와는 다르게 약간 깊게 8~10cm깊이로 심어주면 토양에서 더욱 튼튼한



제 얼굴만한 클레마티스 꽃이 피었네요.

줄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병으로 시들병이 있는데요, 이는 약간 깊게 심어 주고 부엽토 혹은 낙엽 등으로 뿌리 주변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덩굴식물로 기어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펜스, 파고라, 야치, 트렐리스 등 알맞은 지지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품종을 번갈아 혼식하여도 좋고 인동류, 능소화, 으름 등 타 덩굴식물과 어울려 심어도 좋습니다. 또한 꽃이

매우 화려하여 분화용으로도 좋은 소재인데요, 생장력이 왕성하지 않고 모양이 아담한 품종은 화분에 덩굴고리를 설치하여 가정에서 손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아직 설계할때나 현장에서는 품종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고 아울러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다음 페이지에 소개해 드릴테니 가정에서 또는 조경현장에서 적용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호에서는 올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하늘국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기대바랍니다.



클레마티스 품종들이 숲속 자라고 있네요. 보기만 해도 즐거워요~



도모시



아사바



카나바



클레마티스 Clematis 종류



크림



알티플루



밀루



스노우퀸



하글리



마담



프레지던트



몬타나



핑크만타지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에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차 속에서 보이는 멀리 저곳의 강렬한 무언가에 이끌려 차를 돌린다. 저마다 탄성이 절로 마음속에서 눈속에서 우러나온다. 우리가 흔히 보아온 꽃잔디. 이 꽃잔디가 이렇게 아름다울수 있을까. 기존의 대면적의 잔디동산을 꽃잔디를 이용하여 새롭게 리모델링한 생초국제조각공원 꽃잔디 정원을 찾아가 본다.

I. 2013년 여름, 리모델링 설계가 시작되다.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 위치한 생초국제조각공원. 이 공원은 특색이 부족하고 넓은 지형적 특성에 비해 시야가 탁 트이게 형성되지 못해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동선의 체계가 조각품을 관람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었고 나무들이 많이 자라 조각품을 관람하는데 시야를 가려 방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리모델링을 위한 전체적인 설계의 방향은 주변 가야 유적과 연계한 특색있는 꽃잔디식재로 고대와 현대가 융합된 새로운 창조지역으로 육성하고 꽃잔디 축제를 통한 지역특성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축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기존 조각공원의 특성을 더욱 부각화시키고 지형을 이용한 포토존, 전망공간을 조성하고 스카이라인, 평면의 배색을 고려한 식재패턴을 적용하였다.



잔디제거 전



잔디제거 후



유기질퍼틸라이즈를 설치

II. 2014년 5월, 꽃잔디여행을 위한 첫 삽을 뜨다.

대상지인 생초국제조각공원은 전체 면적이 16,790㎡로 꽤 넓은 면적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각품을 관람하기에 불편함이 있어 일부 동선을 없애고 가까운 거리에서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동선을 추가하였다. 장비로 기존 잔디에 대한 정비작업이 약 10일간 계속되었다. 그리고 대상지의 경사도가 급해 일반적으로 식재를 할 경우 토사유실이 일어날 수 있어 특히 제품인 유기질 퍼틸라이즈를 설치하였다. 유기질 퍼틸라이즈를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는 부직포에 유기질비료를 넣어 사면에 꽃는 형태로 토사유실의 방지 및 비가 오면 부직포에 들어있는 유기질비료가 스며나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비료가 공급이 된다.



III. 꽃잔디 동산을 만들어 가다.

이 넓은 면적에 단일 품종의 꽃잔디만 식재하면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너무 단순하여 이내 식상하고 지겨워질 수 있음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색감의 꽃잔디 품종(레드썬, 레드아이, 레드킹, 에메랄드, 화이트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동시에 전체적인 평면의 배색이 잘 이루어지도록 디자인을 하였고 또한 축구의 고장이기도 한 산청군의 상징물로서 축구공의 문양 및 가야의 상징물인 토기를 꽃잔디 동산에 표현하여 축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먼저 식재 라인을 살릴 수 있도록 정비된 식재지에 줄로 정확하게 식재지 라인을 표시한 뒤에 식재가 이루어 졌다. 유기질 퍼틸라이즈를 사이에 약 500,000본의 꽃잔디 식재가 40여일간 이어졌다.

장마기와 뜨거운 여름의 더위를 지나 황토포장을 마지막으로 생초국제조각공원 꽃잔디동산은 완성되었다. 식재후 많은 비가 내린 장마기 동안 일부 유실된 곳을 보완하고 훌쩍 자라버린 잡초도 제거하고 빠른 활착을 위한 많은 노력속에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아마도 내년 봄, 4월 20일경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5월 꽃잔디의 절정을 맞볼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보며...



IV. 2015년 봄, 최고의 최상의 봄을 피우다!!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 4월이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물이 오르기 시작한다. 따뜻한 봄 햇살이 찾아오면서 하루가 다르게 꽃잔디의 색감이 펼쳐진다. 어느 순간 생초국제조각공원은 꽃잔디로 최고의 봄을 피워내고 있다.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최상의 봄경관을 연출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품종과 디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V. 꽃잔디는 봄 최고의 소재, 이제는 품종과 디자인이 중요하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봄이면 도로변이나 공원, 식물원 등에서 꽃잔디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한 종류로 군식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금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꽃잔디는 봄에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제일 매력적인 소재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더 한 발짝 진전되지 못한 것은 다양한 품종의 이용과 디자인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한 품종으로만 군식하다 보니 여기서 본 느낌과 저기서 본 느낌이 그리 다르지 않으니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디자인적 요소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생초국제조각공원 꽃잔디동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꽃잔디의 다양한 품종을 이용하였고 따라서 색깔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디자인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꽃잔디 경관과는 차원이 다른 최고의 감동을 선사해 준 것이다.



다양한 꽃잔디 품종



2015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제 8회 우리꽃 지식 나눔 축제

신기술(콘가든, 에코홀시스템) 발표 및 소개 / 전시포장 안내 / 신품종 발표
CI 선포식, 대한민국 정원식물 대사전 출판 기념

행사일시 : 2015년 6월 19(금) 14:00 ~ 18:00

행사장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행사일정 : 상세일정은 추후 연락

신청기한 : 2015년 6월 8일(월)까지

신청방법 :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FAX로 접수

TEL. 031) 634-7990, 634-0326 ~ 8 / FAX. 031) 634-7991



수직정원, 벽면녹화, 인공구조물 녹화

최고의 기술은 "세 번의 겨울"을 나봐야 안다.

수직정원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은 수직정원의 대표적 선두주자는 단연 수직정원의 대명사인 이다. 수직정원 벽화수는 일반적인 벽면녹화용 제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제품은 주로 흙을 담은 그릇과 같은 용기를 이용하여 벽면에 부착하게 된다. 그것은 식물이 자라는 밥그릇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밥그릇이 크면 야 좋지만 벽면에 메달 수 있는 용기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런 제품은 혹독한 겨울을 날 수가 없다. 물과 양분의 유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수직정원의 기술력은 겨울을 세 번은 나뉘야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수직정원 벽화수는 따로 그릇이 없다. 토양만이 있을 뿐이다. 원하는 벽면 전체가 썩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는 자연상태의 토양과 같은 것이 식물의 뿌리를 한정하지 않고 또 수분의 고갈도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심장인 서울의 하늘아래 실내가 아닌 건물 외부에 시공되어 3년을 넘긴 기술력은 오직 벽화수가 유일하다.

더욱이 벽화수는 3년이 아니라 이미 6번의 겨울을 넘기고서도 아주 아름다운 수직의 정원을 연출하고 있다는 데서 역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역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의 기술력이 헛되지는 않는 것이다.



대면적의 아름다운 연출을 위한 최고의 소재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명성

우리법면 혼합종 시리즈

특 성

1. 야생화 26종이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매년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2. 일년생과 다년생이 적절히 혼합되어 첫째에는 일년생 위주로 꽃을 피우면서 첫째부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3.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운 경관과 아울러 안정된 식생을 유지한다.
4. 연중 시공이 가능하며 구미에 맞게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법면 3호, 4호)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

빠어난 미모의 멸종위기 야생화

“복주머니꽃”

개불알꽃

가장 자연스러운 이름

야생식물의 이름 속에는 어느 정도 그 식물의 특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생김새와 특징을 잘 관찰하면 저절로 이름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된다. 개불알꽃은 이름 그대로, 누가 봐도 개불알꽃이다. 구태여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이도 말이다. 식물의 특징을 제대로 살린 좋은 이름이, 부르기가 민망스럽다고 하여, 일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주머니꽃, 주머니꽃, 또는 복주머니난이라는 이름인 것이다.



개불알꽃(기본종)



개불알꽃(접사)



개불알꽃(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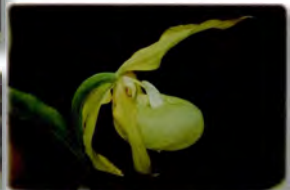
광릉요강꽃(접사)



털개불알꽃(접사)



흰개불알꽃(접사)



노랑개불알꽃(접사)



개불알꽃(접사)



개불알꽃(접사)

개불알꽃의 특징 관찰

개불알꽃은 둥글고 길게 늘어진 아래쪽 순판의 모습이 누가 봐도 개불알꽃인 것이다. 다른 어떤 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보기만 해도 개불알꽃의 특징을 가진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이처럼 식물의 이름은 그 식물의 특징을 잘 담고 있는 자연스런 이름이 가장 좋은 것이다. 식물의 이름이 민망하다거나 창피스러움에 관계없이, 누가 봐도 쉽게 수긍을 할 수 있는, 식물의 이름만 듣고도 그 식물의 특징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름이 가장 좋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불려오던 자연스러운 이름은 바꿀 필요가 굳이 없는 것이다.

멸종위기식물로 지정이 된 꽃

1980년대, 야생화를 찍겠다고 카메라를 돌려메고 내가 처음 꽃을 찾아다닐 때, 내 고향인 단양 소백산에는 개불알꽃이 무더기로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었다. 힘들여 찾지 않아도 산에만 오르면 저절로 실컷 만날 수 있는 꽃이 바로 이 개불알꽃이었다. 누가 봐도 예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개불알꽃이, 이제는 눈두고 종일토록 찾아야 겨우 두 세 송이 확인하면 다행일 정도로 찾기 어렵게 변해버렸다. 과연 누구의 탓일까? 옮기면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꽃이, 예쁘게 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자꾸 옮겨지고, 죽고... 그래서 2012년부터는 드디어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이 되고 말았다. 벌과 나비를 유혹해서 후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피는 예쁜 꽃 때문에, 탐욕에 물든 사람들의 손에 의해 무참히 뽑혀 죽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



개불알꽃(군락1)



개불알꽃(군락2)



개불알꽃(군락3)



개불알꽃(군락4)



개불알꽃(군락5)



개불알꽃(군락6)



개불알꽃(기본종군락)



광릉요강꽃(군락)



개불알꽃(풍경)

개불알꽃의 특징

복주머니란은 난초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전체에 가는 털이 있고 뿌리줄기는 짧고 크며, 옆으로 뻗으면서 마디에서 수염뿌리가 내린다. 줄기는 곧게 서며, 높이 25~40cm 정도이다. 산의 풀밭에서 자라는데, 줄기 끝에 핀 꽃 모양이 개의 불알처럼 생겼다고 해서 '개불알꽃', 또는 꽃이 주머니 같아 생겨서 '복주머니꽃'이라고도 하며, 꽃이 둥글고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 '요강꽃'이라고도 부른다.



노랑개불알꽃(군락)

개불알꽃의 자생지

우리나라에서는 붉은색으로 피는 한 종류밖에 없지만, 백두산 근처의 산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으로 피는 개불알꽃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다. 붉은색, 노란색, 흰색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들 색깔이 적절히 조합되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6~7월의 산지와 들판을 화려하게 수놓는 꽃이다. 도강상의 이름으로는 개불알꽃, 흰개불알꽃, 노랑개불알꽃, 털개불알꽃, 그리고 이와 특징이 가장 비슷하게 생긴 광릉요강꽃, 이 모든 것들은 야생의 난초과 식물이면서도 가장 귀한 멸종위기식물에 속한다. 누가 봐도 탐을 낼 정도로 미모도 빼어난 꽃이다.

야생식물의 보호

야생의 식물은 야생에서 자랄 때 가장 강한 법이고, 인간의 손에 의해 길러질 때는 가장 약한 법이다. 원예식물은 인간의 손에 의해 길러지는 식물이므로 온갖 사랑과 정성을 받으면서 곧게 길러져야 한다. 예쁘고 귀한 야생식물이 야생에서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람들은 헛된 욕심을 제발 버려야 한다. 지구상의 유일한 생산자인 식물이 스스로 경쟁을 하고, 환경의 도움을 받으며 맘껏 자랄 수 있는 바람직한 생태공간을 사람들은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식물과 동물이 맘대로 살 수 있는 공간, 이것이 바로 지상낙원이 아닐까?



털개불알꽃(군락)



개불알꽃(군락5)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co.kr



올타리의 정겨움을 더해 주는

강낭콩 Kidney Bean



글 사진 안완식
토종씨드림 대표

강낭콩(강남콩)은 영어로는 콩팔과 모양이 같다 하여 *Kidney bean*, *Green bean*이라고도 불린다. 중국에서는 菜豆, 蠶豆, 蠶豆로 쓴다. 菜豆나 *green bean*이라 한 것은 꼬투리가 연할 때 꼬투리째 익혀서 채소처럼 먹는 데서 유래하였다.

기본종은 덩굴강낭콩으로 덩굴이 뻗지 않는 것은 변종이다. 덩굴 강낭콩의 사촌적인 홍화채두는 화초로도 심는 덩굴강낭콩으로 꽃이 붉고 종자가 큰 강낭콩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재배역사가 그리길지않은 강낭콩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로서 어떤 정도로 한반도에 건너왔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강낭콩은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충북부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키 작은 종류는 강낭콩 또는 앉은뱅이강낭콩이라 하며, 발리 성숙해서 두 번 심을 수 있어서 두벌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충청도 이남에서 많이 재배되는 덩굴강낭콩은 울릉·울양대·덩굴콩·올타리 강낭콩으로 불려 지는데 일반적으로 늦게 익는다. 키 작은 강낭콩이 충청도 이북 지방에서 많이 재배되어 왔던 것은 감자밭에 간작을 할 수 있고 숙기가 짧아서 수확 후 김장채소를 심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낭콩은 주식이라기보다는 밥에 섞어서 지어먹는 잡곡과 같은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가꾸어지고 보존되어져 왔다. 풋것은 까서 밥에 두어 먹고 익은 것은 거피를 하고 설탕가루를 넣어서 떡고물로 쓰면 제격이며 콩보다 탄수화물의 함량이 훨씬 높아서 밥에 두어 먹으면 잘 퍼지고 팍팍한 밥맛이 난다. 서양 사람들이 강낭콩을 먹는 방법은 우리와 다른데 폭 삶은 강낭콩에 단맛을 가미한 통조림으로 이따금 양식집에서 그 맛을 볼 수가 있다. 또 강낭콩 꼬투리가 아직 연할 때에 따서 풋것으로 익혀서 껍질째로 많이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나물이나 김치와 같은 것에서 취할 수 있는 섬유소를 그들은 그렇게 취하는 것 인가보다.

키 작은 강낭콩은 경기도나 충청도에서 마늘밭이나 텃밭에 간작으로 심기 때문에 좁은 땅을 넓게 쓸 수 있으며, 덩굴강낭콩은 올타리에 드문드문 올라서 꽃도 이따금 따서 밥에 두어 먹으니 넓은 땅이 필요 없다. 서리를 때 때먹는 서리강낭콩은 햅쌀밥에 두어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이다. 알의 크기는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으며 흰꽃의 덩굴강낭콩



생강꽃



개량종 생강은 토종보다 키가크지만 형이 적다.



수확기 전의 토종생강



완주군 봉동읍 이영순아주머니가 대물림한 토종생강

과 붉은 꽃의 덩굴강낭콩이 어울리면 꽃 올타리로 제격이다.

감자밭 이랑 사이에 부록을 박는 강낭콩은 작물이 서 있는 밭이랑에 드문드문 씨를 붙인다는 뜻이다. 이를 '부록을 박는다'라고 한다. 그와 반대로 '노가리'는 전 면적에 걸쳐 씨를 흩어 뿌린다는 뜻이고, '골뿌림'이란 골을 만들고 골에만 씨를 뿌리는 작업을 가리킨다. 인구에 비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조상들은 좁은 땅을 가장 유용하게 쓰는 방법으로 부록을 치는 간작법과 일 년에 한 밭에서 곡식을 두 번 거두는 이모작법을 이용해 왔다. 강낭콩과 감자가 바로 이런 재배법에 있어서 제대로 된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다.

감자는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에 심고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에 수확을 하는데, 강낭콩은 5월중에 감자밭 고랑에서 40일 정도의 기간 동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재

배법에 맞추어 작물이 선택되고 품종의 특성이 선택되어 내려오면서 고정된 것이 바로 지금의 토종이다. 40cm 내외의 작은 키에 10cm도 더 되는 긴 꼬투리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키가 작은 빨강강낭콩을 잎과 꼬투리가 노르스름한 색으로 변할 때쯤 뽑아다가 한 꼬투리씩 까면서 시골의 아낙들은 바쁜 중에서도 행복감을 맛본다. 쌀이 조금 섞인 보리밥에 드문드문 들어 있는 강낭콩은 파삭파삭하면서 특유의 향의 맛이 난다. 단백질 함량은 31%정도로 단백질을 조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조성은 고기와 비슷하고 보통 방법으로 가공하여도 75% 정도가 흡수된다. 탄수화물, 플라보노이드, 스테아린, 유기산, 비타민, 아이소플라보노이드 성분 속에는 파세올라신, 파세올린, 이소플라민, 케에비논 등의 성분들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꼬투리 껍질을 달린 약은 동물실험 결과 뚜렷하고도 지속성 있는 혈당 작용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알부민이 많이 들어 있는 종자의 껍질을 당뇨병 치료에 쓴다. 또 비타민 B1·B2·B6가 많아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에게에는 탄수화물 대사를 순조롭게 하며 건강 작용을 하는 식물성 섬유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 식탁에 자주 올리면 좋다. 꼬투리에는 인슐린의 원료가 되는 아연이 들어 있어 꼬투리로 주스를 만들어 마시면 당뇨에 좋다. 강낭콩을 고를 때는 녹색이 진하고 두터우며 꼬투리가 울퉁불퉁하지 않고 작은 것이 좋은 것이다. 마른 콩은 크고 윤기가 나며 알이 고른 것이 좋다. 보관할 때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짧은 보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장기 보관하려면 간단하게 삶아 식힌 후 냉동실에 넣어 두고 필요 할 때 꺼내 먹으면 된다.



완주군 한 농가의 토종생강 재배모습



완주군 한 농가의 토종생강 재배모습



완주군 한 농가의 토종생강 재배모습



완주군 한 농가의 토종생강 재배모습



완주군 한 농가의 토종생강 재배모습

《강낭콩 가꾸기》

- 종자구입: 강낭콩 씨앗은 상온에서 2년이 지나면 70% 정도의 발아율을 보이며 3년이 지나면 거의 발아력이 없어지므로 시중에서 구입 할 때 채종일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강낭콩은 주변에서 많이 재배하므로 종자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 시골의 친척집에서 토종종자를 구하여 심으면 더욱 좋지만 전통 5월경의 씨앗을 파는 곳에서 토종종자를 구입 할 수도 있다.
- 거름주기: 강낭콩은 일반적으로 토양을 가리지 않고 잘 되지만 산성토양보다는 중성토양에서 잘 된다. 물 빠짐이 좋으며, 양치바늘은 곳을 더 좋아한다. 밭에는 잘 썬 퇴비를 1㎡에 1~2kg을 흩어 뿌려주고, 가능하면 석회를 1㎡당 100~150g 정도 뿌려주면 산성이 중화되어 좋다. 강낭콩은 습해에 약하므로 물 빠짐에 신경을 써야 한다.
- 파종시기: 강낭콩은 늦서리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씨이 돌아나는 시기에 늦서리를 맞지 않는 시기를 택해야 한다. 중부지방의 경우는 4월 중순 이후가 안전하며 남부 지방은 약간 앞당겨 심어도 된다.
- 파종방법: 파종은 30cm 간격으로 씨앗을 2~3개씩 심고 휴면기는 2cm 정도 한다. 씨앗을 심기 전에 한나절 정도 물에 담갔다 심으면 좋다. 또 감자를 심은 밭고랑에 30cm 정도의 간격으로 2~3립씩 파종 하면 좁은 밭을 잘 활용할 수도 있다. 파종 할 때 두둑은 만들지 않더라도 물이 잘 빠지도록 고랑을 만드는 것이 좋다.
- 수확: 강낭콩의 꼬투리가 조금씩 갈색으로 변해가게 때가 수확적이다. 강낭콩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정마칠이 오면 씨이 돌아나기 쉽다. 강낭콩은 조금 덜 익어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정마치가 오기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한다.



Cornus florida Cherokee Chief 꽃산딸나무_체로키 치프



Cornus kousa Wolf Eyes 산딸나무 울프 아이스



Cornus kousa 산딸나무

산딸나무와 꽃산딸나무 Cornus

산딸나무는 열매가 산딸기모양처럼 생겼다하여 산딸나무라고 부른다. 북반구의 온대 지방에 자생하며 전 세계에 *Cornus* 속 종이 40여종이 분포 자생한다. 이중에 14종이 미국과 캐나다 동남부에 자생하며 1종이 남반구의 페루에 자생하며영 명으로는 더그우드(dogwood)라 부른다. 더그우드라고 부르는 이름이 되기까지의 유래는 불확실하지만 17세기 초에 영국에서 유럽과 서부아시아에 자생하는 *Cornus*(屬) 가운데 말채나무와 비슷한 코르누스 상구이네아(*Cornus sanguinea*) 종의 나무 껍질을 벗겨서 다려 그 물로 개를 목욕을 시킨데서 유래된 듯하다. 이 나무 이름의 보통명어(dogwood, common dogwood)라고 부른 것이 이속에 속하는 꽃산딸나무에 전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에 산딸나무 꽃과 유사한 종은 한국에 자생하는 산딸나무와 중국에 자생하는 중국산딸나무, 미국에 자생하는 꽃산딸나무가 있고 포엽이 6개인 코르누스 누탈리(*Cornus nuttallii*)등이 있다.



Cornus kousa 산딸나무



화려하게 핀 꽃산딸나무 루브라



화려하게 핀 꽃산딸나무 체로키 치프



윤 평 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Cornus florida Appalachian Spring

산딸나무는 약용으로 수렴제, 지혈제, 지혈제, 지리, 속골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외상출혈에 이용되었으며 열매는 단맛이 있어 생으로 식용이 가능하지만 즐겨 먹는 것은 아니다. 꽃과 열매는 붉게 물들어 관상수로 이용된다. 꽃산딸나무는 일명 서양산딸나무, 미국산딸나무라고도 부르는 이 식물은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해열제, 강장제, 방부제로 사용하며 학질(말라리아)병에 걸린 사람들은 껍질에서 추출해내어 약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잎에는 칼슘 성분이 많아 가축 사료로도 사용되었으며 재질이 단단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푸레나무 모양 호미자루나 낫자루, 팬자루, 곡괭이 자루 같은 연장자루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재질이 단단하여 오보에나 플룻, 바순등의 악기재료로도 사용되며 직조기의 실감는 북, 조각가의 받침목, 화약 대용으로 목탄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꽃산딸나무는 껍질에 황산철을 섞어서 검은색 잉크를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뿌리를 삶아서 붉은 색을 내어 담료와 허리에 물을 들여 염색하였다. 원예용으로는 조경용, 정원용, 공원용, 가로수용으로 이용되며 절화용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정원에 식재된 꽃산딸나무



Cornus florida Rainbow 꽃산딸나무 레인보우



Cornus kousa Beni-Fuji 산딸나무 베니 후지



Cornus florida Cherokee Princess 꽃산딸나무 체로키 프린세스



Cornus florida Rubra 꽃산딸나무 루브라



Cornus florida Eddie's White Wonder 꽃산딸나무 에디스 화이트 윈더

꽃산딸나무는 꽃이 너무 아름다워 버지니아주와 노스캐로라이나주의 주화(州花)로 지정되어 있으며 미주리주에서는 주목(州木)으로 지정되어 있다.

재배 및 관리는 종자로 번식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꽃을 보기 위해서는 원예품종은 접목으로 번식한다. 종자번식은 노천매장을 3~4개월을 하여 파종하거나 10월에 종자를 채취하여 직파한다.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햇빛이 드는 곳에 심는 것이 좋지만 본 속식물의 속성이 반그늘진 나무그늘에서 자생한다. 토질은 가리지 않는 편이나 비옥한 사질양토의 적습지에서 잘 자란다. 심을 때는 구멍이를 파고 심되 거름을 주지 말고 심으며 활착이 잘된 뒤에 완전히 부숙된 유기질비료를 주는 것이 좋다. 내한성은 산딸나무는 강하여 노지에서 월동하나 꽃산딸나무는 이상기후로 월동이 가능하지만 생태적으로 볼때는 불확실하다.

꽃은 산딸나무는 포엽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5월 내지는 6월에 피고 꽃산딸나무는 4월말부터 5월에 피며 산딸나무보다 1달가량 일찍 핀다. 산딸나무는 포엽이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꽃산딸나무는 포엽이 4장으로 꽃잎 끝이 오목하게 들어 있다. 열매는 산딸나무는 지름이 2~3cm로 붉게 익으며 둥글다. 꽃산딸나무는 긴타원형으로 몇 개가 달린다. 기타사항은 아래와 같다.

산딸나무와 꽃산딸나무의 비교 차이점

수종	산딸나무	꽃산딸나무
학명	Cornus kousa	Cornus florida
꽃색	흰색, 유백색, 분홍색, 붉은색, 혼색	흰색, 크림색, 분홍색, 붉은색, 혼색
성상	소교목~교목	소교목~교목
개화기	5월하순~6월상중순	4월하순~5월상중순
열매	지름이 2~3cm로 둥글며 붉게 익음	과당당 3~4개씩 달림 지름이 0.5~1cm
식용가	식용가	식용불가
내한성	강하여 월동함	약하나 이상기후로 월동이 가능함
품종수	90여품종	50여품종
포엽형태	4장에 난형에 끝이 뾰족함	4장에 도란형 내지는 넓은 도란형에 끝이 오목하게 들어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CZ입니다.

종자	꽃묘	프러그	구근	조경용 수목
일반초화 종자 다년생초화 종자 야생화 종자 채소 종자 등	일반초화 꽃묘 다년생초화 꽃묘 야생화 꽃묘 등	일반초화 프러그 다년생초화 프러그 야생화 프러그 삼수 프러그 등	춘식구근 추식구근 등	연산홍 자산홍 남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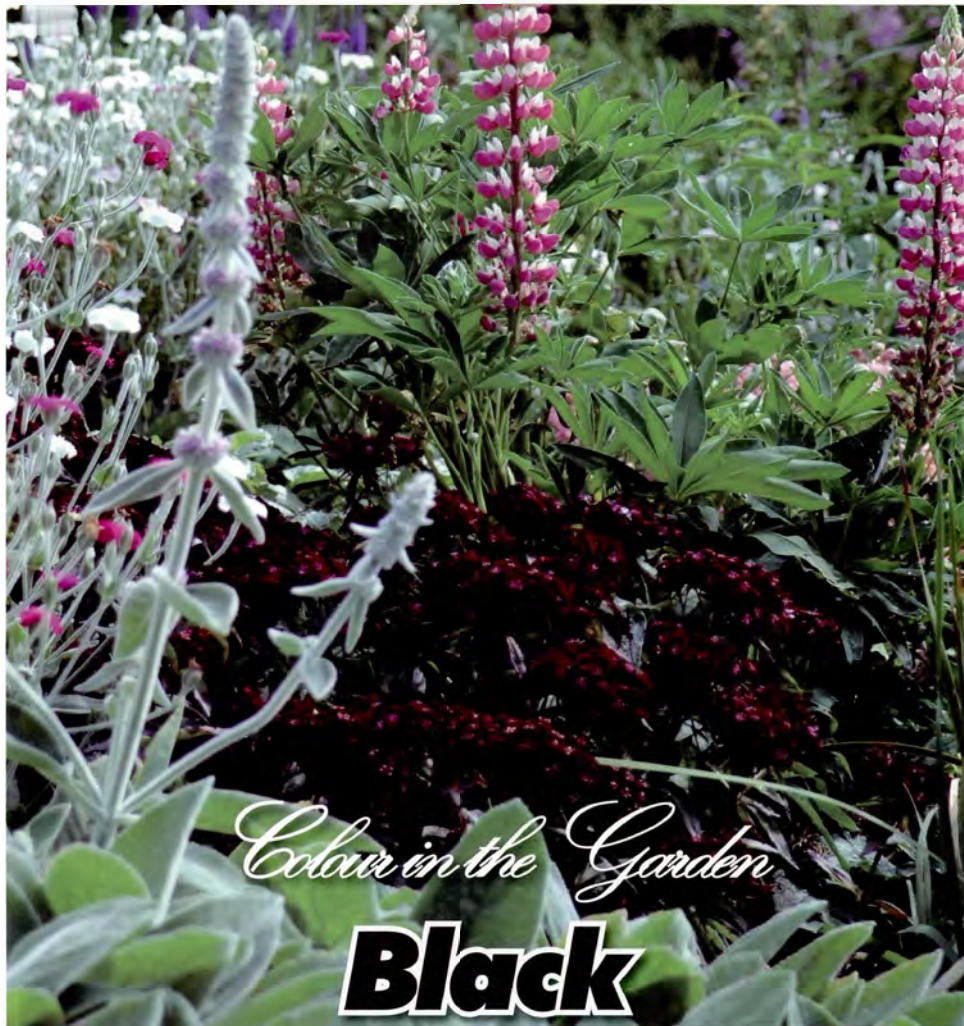
농업회사법인 (주)씨제트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오 도

품목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검정색은 흰색과 마찬가지로 무채색이면서, 명도가 제일 낮은 색이다. 수채화에서는 검정색을 만들기 위해 어두운 계통의 물감을 모두 섞어서 최대한 검정에 가깝게 만든다. 즉 검정을 만들 때 섞는 모든 색과 검정은 어울릴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반면에 흰색이나 밝은 계통의 색과 어울리면 밝은 색은 더욱 밝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검정색만이 가질 수 있는 이색적인 매력을 정원 속으로 끌고 들어와 밝고 어두움 또는 악센트로서의 멋을 느껴보자.



West Dean Garden

검정색은 차분한 인상을 준다 Edinbrough Botanic Garden

사람들은 검정색을 주로 옷 색깔에 이용하기도 하고 자동차 색에 주로 이용하기도 한다. 상복에서의 검정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차분하고 위엄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자동차에서의 검정은 고급스러움과 질리지 않는 차분한 이미지를 준다. 이처럼 검정색은 차분하면서도 감정을 가라앉게 하는 안정감을 주는 색이다. 그렇다면 정원에서의 검정은 어떨까? 역시 다양한 색들이 섞여 산만할 수 있는 정원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Edinbrough Botanic Garden

검정색은 옆에 있는 색을 밝게 해 준다 Hampton Court Flower Show

검정색은 노란색과 있을 때 노란색을 가장 극대화 시키지만, 다른 모든 색들과 있을 때도 역시 옆에 있는 색을 밝게 해 준다. 검정의 어둡고 차가운 색이 옆에 있으면, 꽃 색깔과 양의 차이에 상관없이 밝은 느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무채색인 검정의 장점을 이용해, 다양한 색깔의 꽃과 나무를 배역해 보자. 단 검정색 꽃단의 화단은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Hampton Court Flower Show

검정색은 정원이나 화단에서 악센트로 이용하며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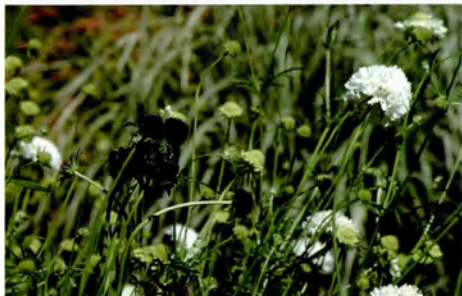
Spring bedding, RHS Garden, Wisley

정원에 심는 꽃과 나무 중에서 검정색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검정색이 어울릴만한 곳을 꼽으라고 하면 트로피컬(Tropical)화단일 것이다. 트로피컬(Tropical) 식물들은 주로 빨강색과 주황색이 많기 때문에 너무 화사해서 질리기 쉬운 시선들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검정색 꽃은 그 이외에도 많은 양을 모아서 심기 보다는 악센트로 소량을 곳곳에 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Spring bedding, Wisley Garden

Pink Harmony 어울림조화



Great Dexter

1. 검정과 흰색의 어울림 (Great Dexter)

스카비오사(*Scabiosa* sp.)의 흰색과 검정색이 같은 공간에서 피어나고 있다. 검정색은 검정색대로 흰색은 흰색대로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 준다. 작고 얇은 꽃잎을 꽃송이 가득 피우면서 부드러움을 더해 준다. 자칫하면 너무 어두워지기 쉬운 검정색이 흰색 덕분에 밝아지고, 흰색은 검정색 덕분에 더 순백색으로 보이게 한다.

2. 검정과 오렌지색의 어울림 (Hampton Court Flower Show)

검정바탕에 오렌지색의 줄무늬가 그어져 있는 칸나(*Canna* sp.)잎이 압도적이다. 넓적넓적한 잎이 웅장하면서도 시선을 사로잡으며, 오렌지색의 크로코스미아(*Crocsmia* sp.)와 최상의 조화를 이룬다. 칸나와 크로코스미아는 한 여름에 피며, 특히 트로피컬가든(Tropical Garden)에 더욱 잘 어울린다. 주위의 시선을 한눈에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진다.



Hampton Court Flower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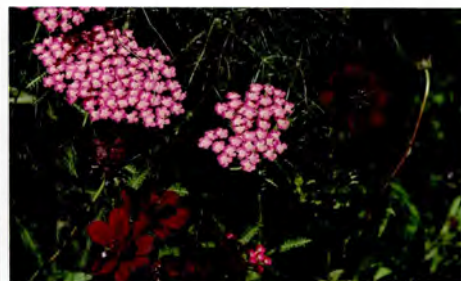
Packwood House

3. 검정과 노랑의 어울림 (Packwood House)

검정과 노랑은 보색 관계로 두 가지 색이 같이 있으면 각각의 색과 매력을 돋보이게 한다. 노란꽃의 아킬레아(*Achillea* sp.)의 우산 모양의 꽃과 검정색 다육식물(*Aeonium* 'Zwartkop')의 시원스러운 잎 모양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으로 화면 전체를 꽉 메우고 있다. 숙근초와 다육식물을 화단에서 같이 심는 경우는 드물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친숙한 느낌이 든다.

4. 검정과 분홍의 어울림 (Hampton Court Flower Show)

검정색의 코스모스는 최근에 만들어진 개량종의 꽃이다. 사진 찍을 때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 밝고 어둠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희귀하면서도 우아함을 자아낸다. 코스모스와 분홍색 꽃의 아킬레아(*Achillea* sp.)는 모두 국화과의 식물로, 꽃을 피우는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친근하면서 귀여운 느낌이 든다. 아킬레아 꽃의 가운데에서 피어나는 흰색의 관상화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어 주고 있다.



Hampton Court Flower Show



(Helleborus x hybrid Ashwood double, Wisley Garden)

5. 검정과 파스텔컬러의 어울림 (Helleborus x hybridus 'Ashwood's Double Strain', Wisley Garden)

사순절장미 중에서도 렌텐로즈(*Helleborus orientalis*)의 겹꽃이다. 연하고 부드러워 따뜻하고 포근함을 주는 파스텔 컬러가 검정색과 같이 어울리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주고 있다. 크림색에 이어 분홍색이 오고 그 다음으로 진한 자주색이 그리고 검정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움이 돋보인다. 노란색의 봄꽃들이 아직 피기 전 사순절장미의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럽다.

Harmony In Black Garden 식물의 조화



Abies delavayi Delavay's silver fir (Wakehurst)



Arisaema sikokianum (Wisley Garden)



Fritillaria persica (London flower show)



Iris sibirica Caesar's Brother (Wisley Garden)



Prunus himalaica (Wisley Garden)



Aeonium Zwartkop (Wisley Garden)



Euphorbia amygdaloides Purpurea (Wisley Garden)



Geranium phaeum var phaeum black-flowered (Wisley Garden)



Iris Deep Black (Wisley Garden)

2015년 코리아가든쇼 전경



2015 고양국제 꽃박람회



김 중 보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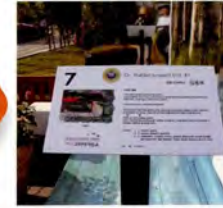
SNS : www.facebook.com/Dr.Rabbitt , Email: dr.rabbitt.pjt@gmail.com

세계 화훼 교류관, 조경기술 및 도시농업연출관

야외정원은 구성이 다채롭게 꾸며져 다양한 공간을 시민을 위해 준비한 정원임이 피부에 와닿았다. 정원은 15개의 종류를 이루어 어느 세대의 방문객에도 방문자 모두에게 5월 정원 안에서 펼쳐지는 현장이벤트, 체험프로그램, 먹거리공간, 관광안내, 꽃문화 행사, 화훼세미나, 공원 이벤트등등 고양시시티투어로도 다양한 준비를 이루었다.

15개의 정원은 세계화훼교류관 & 화귀식물전시관을 포함하여 테마별 맞춤형정원과 주제별로는 행복정원, 평화누리정원 사랑고백정원, 개구쟁이정원, 오솔길 향수정원, 2015년 코리아가든쇼, 몽계구름정원, 돌이 하나로 정원, 행복 동지정원, 속삭임 정원, 모자이크컬처 정원, 한소만 꽃벽, 오순도순 정원, 고양이 가족정원, 갯돌 포토정원, 코리아가든쇼가 준비되었다.

2015년 코리아 가든쇼의 작품중 김중보 디자이너의 Dr. Rabbit Project vol. #1.의 작품을 만나게 되었다. 오늘의 '작가 소개의 날'에 김중보 디자이너를 만나며, 흥미있게 보았던 디자인에 더 많은 매력의 정원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닥터 레빗은 엘리스를 찾아 떠난 시계토끼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이상한 나라로 엘리스를 데려간 시계토끼를 아는가? 이곳은 엘리스를 찾아 나선 닥터레빗의 비밀공간이다. 닥터레빗은 우리의 세상을 훑쳐보며, 모험을 향해 떠날 엘리스를 찾고 있다. 우리 함께 닥터레빗의 비밀장소를 구경해 볼까?

공간 1. Peeking (훑쳐보기)

공간 2. Rabbit Hole 토끼굴

공간 3. Party 닥터레빗의 비밀정원

1st. Peeking (훑쳐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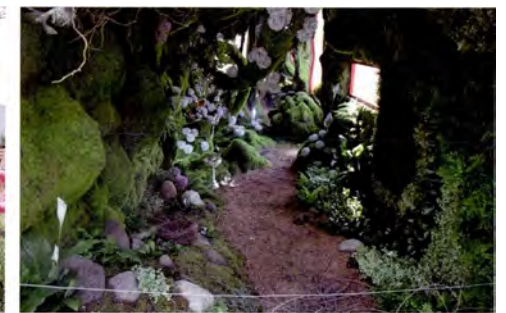
닥터레빗의 비밀장소로 들어가는 입구는 좁은통로를 지나야한다. 스틸벽면을 이용하여 좁은 공간을 시각적 확대하며 나와 동행하는 제2의 나와 함께 걷는 공간

식재 : 자작나무, Betula platyphylla, 튜립, Queen of Night(Black), Clear water (White) 무스카리 Muscari armeniacum 등등

2nd, Rabbit Hole 토끼굴



토끼굴 입구



토끼굴 내부

통로를 지나 고개를 돌리면 닥터 레빗의 토끼굴을 만나며, 정원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세상과 연결된 토끼굴로 상징성을 표현하였다. 토끼굴에는 닥터 레빗의 친구인 은빛나비 (iron Butterfly) 와 엘리스장미 (iron flower) 가 자라고 있다. 정원의 공간에 스토리를 담아 연출한 작품으로 아주 흥미롭고 소재도 다양하며 내부 토끼 굴의 습지 식물과 벽면녹화 디자인도 재미있게 구성하였다.

식재 : 와송 *Orostachys japonicas*, 사철 채송화 *Lampranthus spectabilis*, 큰 억새 *Miscanthus robustus*, 왕매발 나무 *Berberis amurensis*, 비비추 *Hosta longipes*, 단풍취 *Ainslaea acerifolia*, 비올라, 종지나물 *Viola papilionacea* Pursh, 관중 *Dryopteris crassirhizoma* 등등



"나는 종종 정원사가 되어가는 꿈을 꾼다. 나의 엘리스를 위해 정원에 꽃을 심는 일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정원사의 각오도 정원 '작품 #1 번' 의 정원안에서 느낄 수 있다.

3rd. Party 닥터레빗의 비밀정원



토끼굴의 천정은 정원에서 빠질 수 없는 채소정원을 준비하여 엘리스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도록 배려한 마음이 모두에게 전달되고 있다.



보랏빛 둥근 알라움의 비밀정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따스하고 반갑게 반기며 정원의 활력소가 되도록 식재의 다양성에서도 소개하고픈 정원이다. 닥터레빗과 엘리스가 함께 하는 의자 사이로 보이는 정원의 색상은 서로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무기토 되고 있다..



토끼굴의 벽면의 강렬한 색상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색상을 연출한 엘리스를 위한 비밀정원의 모습은 다양한 색상과 꽃향기로 누구든 있어 담소를 즐기곤 정원이다.

비밀정원은 숨어있는 공간이 아닌 엘리스를 위한 색채도 강렬하며, 정원의 소재도 화려함과 식재의 선정에도 많은 재미를 이끌어낸 공간이다
식재:

단풍나무 Acer palmatum
자엽자두 Prunus cerasifera
델피니움 Delphinium elatum
디기탈리스 Digitalis purpurea
세이지 Salvia officinalis
로즈마리 Rosmarinus officinalis
금작화 Cytisus scoparius
루피너스 Lupinus polyphyllus 등등



옥상의 채소정원을 볼 기회 주는 닥터레빗, 김중보작가의 정원 소개에서도 즐거움과 재밌거리가 시간마다 흥미롭게 연출되어 그가 기획하는 작품 #100 까지를 기대하며 많은 젊은 정원사에게 자극제가 되리라 본다 정원은 디자인, 식재, 공간연출도 중요하지만 훌륭히 준비된 스토리는 그 정원을 계속 유지하는 주요한 소재로 자리잡게 된다. 정원의 주제를 잡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봄날 오후 정원을 거닐며 각 개인의 정원에도 공간마다 이야기가 연출되는 정원의 주제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비밀 정원의 벽면 처리는 작은 공간이지만 좁은 산책로를 따라 함께 걸어가는 정원길을 연출함으로 마무리 하였다.

김중도의 정원은 작은 공간 속에 많은 스토리를 넣어 비밀공간을 연출하려는 시도가 특이하고 정원을 걸으며 많은 창작세계가 정원의 작품으로 식물과 정원의 소재이용에서 재미있게 펼쳐진 곳이다. 정원의 소재에서 공간이용과 색채의 이용도 높이 평가되는 부분을 정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한 공간연출이다. 그리고 스토리를 매우 강도 깊게 정원 안에 담은 작가의 의지가 정원을 방문하는 모두에게 어린시절의 꿈을 꾸며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종합공간예술로 연출한 영화를 한번 보고 나온 느낌이 가는 스토리 정원이었다.

재활용 가든 -
기와로 만드는 분경

기와는 흙의 수분을 빨리 배출해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물 관리에 신경을 써 주어야 하며, 손가락 테스트로 흙이 완전히 마르면 관수한다. 꽃을 오래 보기 위해서는 꽃잎에는 물이 닿아서는 안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기르는 것이 좋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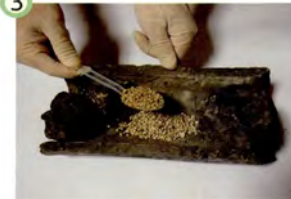
돌에 실리콘을 충분히 파 놓는다.

2



화산석을 기와의 양끝에 붙여준다.

3



아생화 배합토(휴기토, 시스마토, 녹스토, 제오라이트, 경석 등)를 밑에 조금 깔아준다.

4



무늬꽃다지는 포트에서 분리해 뿌리 밑에 부분을 조금 떼어낸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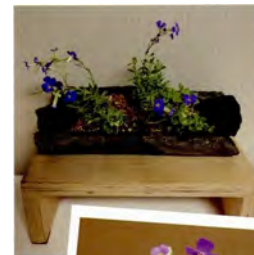


무늬꽃다지를 디자인 해보고 식재한다.

6



식재 후 사이사이와 뒷부분에 흙을 채워준다.



Material



[2015 코리아가든쇼 국립수목원 특별전시정원, 그 후]

- 행사명 : 2015코리아가든쇼(Korea Gardenshow)
- 기 간 : 2015년 4월 24일~5월 10일(총 17일간)
- 장 소 : 고양시 호수공원 / 고양국제꽃박람회장 내
- 주 최 : 산림청, 고양시, (사)고양국제꽃박람회
- 주 관 : (주)한국조경신문



‘수목원을 통해 정원을 보다’

-지속가능한 자생식물 정원-

들어가는 말

2015 코리아가든쇼 국립수목원 특별 전시 정원에서는 대중에게 정원의 조성에서부터 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목원을 통해 정원을 보다’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정원은 국립수목원 전시원을 조성하듯 자생식물을 활용하였고 물질이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숲에서 만난 자생식물을 채집하여 증식을 통해 정원에 심고, 정원을 디자인하고, 관리·조성하는 과정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원을 만들고자 하였다.



국립수목원 특별 전시 정원 대상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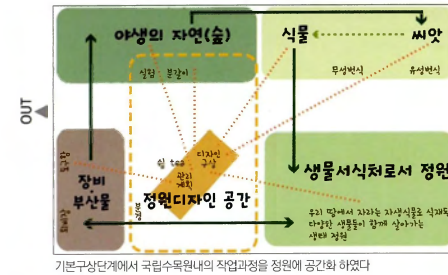
정원의 시작

처음 대상지를 방문했을 때 메타세콰이어 길과 저 멀리 호수가 잔잔히 보이는 경관이 인상적이었고, 현 장소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원을 앉히고자 노력했다. 대상지의 자연을 담은 공간으로서 투명한 유리온실은 수목원을 집약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정원설계의 시작이었다.

공간 계획

우리의 컨셉인 지속가능한 자생식물 정원을 담기 위해 우리 땅에 살아온 자생종을 사용하고, 포유류, 조류의 생물서식처로서의 정원, 식물의 수분작용을 유도하기위한 곤충, 벌, 나비가 서식하고 산란할 수 있는 곤충안식처, 빗물을 재사용하는 빗물받이통, 정원에서 나온 낙엽으로 만든 퇴비를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퇴비함 등 지속가능성과 정원의 공존을 위해 팀원 간 의견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결과 ▶숲(야생의 자연), ▶장비-부산물 공간 ▶정원사의 작업 공간(유리온실), ▶생물서식처로서의 정원, ▶증식원의 다섯 가지 공간으로 정원이 구성되었다.



숲속 정원, 국립수목원의 이미지 형상화에 모티브가 된 이미지
(Designed by Ville Hara and Linda Bergröth, Finland / Photo by ARSI IK-HEIMONEN
DECEMBER 19, 2011)

식재 및 시설물

정원 내 식재된 식물은 자생종으로 구성하였으며 교목6종, 관목7종, 초본20종, 덩굴3종 이다. 구체적인 수종은 아래 표와 같다. 식재 구조 계획단계에서 메타세콰이어 하부를 야생의 숲으로 재현하기 위해 다층구조로 형성하고, 외부에서는 가벽 위로 노각나무의 수피 및 수직적 수형을 감상할 수 있다. 내부에서는 흰색가벽을 배경으로 수피를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는 표본교목 기능을 부여하였다. 관목들은 교목이 형성한 상층 하부를 가득 채워주며 초본의 배경으로서 숲 내부 식생구조를 연출하는데 있어 정원에서 봤을때 숲에서 야고목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었다. 정원의 주인공인 초본식물들은 수수한 멋을 연출하기 위해 많은 색상을 고려하지 않았다. 흰색과 노랑 두 가지로 볼륨감을 형성하고, 때론 단조로운 수 있는 구역에 연보라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구 분	수 종 명	학 명
교목	노각나무	<i>Stewartia pseudocamellia</i> Maxim.
	팔배나무	<i>Sorbus alnifolia</i> (Siebold & Zucc.) C.Koch
	느릅나무	<i>Ulmus davidiana</i> var. <i>japonica</i> (Rehder) Nakai
	마가목	<i>Sorbus commixta</i> Hedl.
	쭈뼌목나무	<i>Syrax obassia</i> Siebold & Zucc.
관목	귀룽나무	<i>Prunus padus</i> L.
	생강나무	<i>Lindera obtusiloba</i> Blume
	가참박달	<i>Exochorda serratifolia</i> S.Moore
	덩굴나무	<i>Abelia mosanensis</i> T.H.Chung ex Nakai
	달팽나무	<i>Viburnum erosum</i> Thunb.
초본	가막살나무	<i>Viburnum dilatatum</i> Thunb.
	개암나무	<i>Corylus heterophylla</i> Fisch. ex Trautv.
	만병초	<i>Rhododendron brachycarpum</i> D.Don ex G.Don
	윤관나물	<i>Disporum uniflorum</i> Baker
	매미꽃	<i>Coreanomecon hylameconoides</i> Nakai
영굴	왕지꽃	<i>Potentilla fragarioides</i> var. <i>major</i> Maxim
	피나물	<i>Hylamecon vernalis</i> Maxim.
	노랑무늬꽃	<i>Iris odessaensis</i> Y.N.Lee

구 분	수 종 명	학 명
초본	노랑꽃	<i>Iris koreana</i> Nakai
	나도바람꽃	<i>Enemion raddeanum</i> Regel
	백작약	<i>Paeonia japonica</i> (Makino) Miyabe & Takeda
	참작약	<i>Paeonia lactiflora</i> var. <i>trichocarpa</i> (Bunge) Stern
	산마늘	<i>Allium microdactylon</i> Prokh.
	모데미풀	<i>Megaleranthus saricifolia</i> Ohtwi
	홍아비꽃대	<i>Chloranthus japonicus</i> Siebold
	민백미꽃	<i>Cynanchum ascyrfolium</i> (Franch. & Sav.) Matsum.
	물승대	<i>Smilacina japonica</i> A.Gary
	은방울꽃	<i>Convallaria keiskei</i> Miq.
영굴	마치광이풀	<i>Scapalia japonica</i> Maxim.
	쥐오줌풀	<i>Valeriana lauriei</i> Briq.
	저너지마	<i>Heloniopsis koreana</i> Fuse & N.S.Lee & M.N.Tamura
	큰앵초	<i>Primula jesoana</i> Miq.
	별개달글	<i>Meehania uniflora</i> (Miq.) Makino
영굴	알굴	<i>Stauntonia hexaphylla</i> (Thunb.) Decne.
	다래	<i>Actinidia arguta</i> (Siebold & Zucc.) Planch. ex Miq.
	으뜸달글	<i>Akebia quinata</i> (Houtt.) Decne.

유리온실은 정원에서 가장 많은 면적과 부피를 차지하는 시설물로서 그 무엇보다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다. 계획과정에서부터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형온실이 대중화되지 않아 생산업체가 많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는 규격(2.5*4*H3.5m)과 재료로의 사공이 공사기간 및 비용부분에서 조율이 쉽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붕형태는 구조제산에 따른 사면이 날렵하게 나오지 못해 평지붕으로 조정되면서 자칫 답답할 수 있는 지붕에



식물은 모두 자생종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생종의 소박한미를 표현하기 위해 한색, 노랑계열의 수종으로 구성하고 포인트 색상은 연보라였다

정원소품 디스플레이

정원분위기 연출에 있어 식물이 첫인상을 지배한다면 그 다음 재미를 주는 요소가 소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디테일한 연정원분위기 연출에 있어 식물이 첫인상을 지배한다면 그 다음 재미를 주는 요소가 소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디테일한 연출에 공을 많이 들였다. 생물서식지로서의 정원에서는 전이라는 제한적 요소가 있지만 새와 다람쥐 등 동물이 실제 서식하기 적합한 환경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낚시줄을 이용해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위치에 재미있는 요소를 곳곳에 숨겨두었다.



작업효율성을 위해 휴식이를 올린 작업테이블 등 실제 작업자를 위한 작은 배려가 있는 설계가 정원에 필요하다

패턴을 줘서 천장을 바라볼 때 느낌 또한 고려하였다. 전,후면의 폴딩도어와 측면부 창살은 최대한 얇은 프레임용을 사용하여 둔해 보이지 않고 날렵한 느낌을 연출하여 만족스러운 유리온실을 완성할 수 있었다. 지면을 밟아 다시 한번 유리온실 제작에 많은 신경을 써주신 아우라토시스템의 김용태 대표님과 KS토시스템 김동현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비교적 소규모 정원(5x8m)내에 도입한다는 점과 수직적 오픈채 연출을 위해 온실프레임은 구조적인 전성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얇고 간결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노각나무에 다람쥐를 매달아 놓고, 광릉수를 연출한 곳에 새집과 벌집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였다. 또한 작업테이블의 경우 주문 제작으로 이루어졌는데 실제 분갈이 등 작업시 테이블 한면에 휴막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실제 작업현장에서의 의견을 반영해 낮은 턱을 둔 작업테이블을 제작하였다. 이처럼 정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비중이 큰 식재와 시설물에 신경쓰는 것도 좋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상세연출은 정원을 즐기는 사람에게 작은 재미와 감동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



실제 정원에 배치되는 소품을 배치하여 전시용이 아닌 방문객에게 다양한 정원관련 도구를 선보이도록 하였다

코리아가든쇼 국립수목원 특별 전시 정원을 마치며

본 정원이 코리아가든쇼 공모에 참여해 선발된 작가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의 장이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정원 조성·관리의 즐거움을 소개하고 우리숲의 자생식물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 작가의 주관적 의견이 많이 반영된 작가정원과 달리 '수목원을 통해 정원을 보다'에서는 우리 땅에서 나온 자란 자생식물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정원 모델을 작게나마 제시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판단된다. 다만 정원으로 들어온 이들의 대화를 듣고 싶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상세한 안내 설명판의 필요성이었다. 모종판의 나열을 보고 어떤 이는 '씨를 뿌려서 받아서 키고 이렇게 꽃이 피는구나'라고 혼잣말을 하는 이가 있는 반면 '이거 한판에 얼마예요?'라고 외치는 이도 있었다. 하물며 숙 둘러보고선 '별거 없네'라는 이

러한 방문객의 반응은 정원문화를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려는 우리의 의도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 측면에서 투박하고 거추장스러울 수 있지만, '숲에서 종자를 채취해 파종하고 받아서 키고 번식시키고 이로 인해 다시 그곳에 씨앗을 뿌려 지속적인 순환의 과정을 거치는 스스로 작동하는 정원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 합니다' '식물이 있던 자리에서 나온 낙엽으로 퇴비를 만들어 다시 그 자리의 토양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순환시켜 줍니다'라고 안내하는 문구와 어렵지 않은 친절한 설명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상황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으로 발을 딛는 순간 들려오는 나지막한 환호가 앞으로 정원의 생활문화로의 정착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작은 희망 또한 동시에 가져본다.



곤충안식처는 지속가능한 자생식물 정원에서 식물 수분매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곤충의 보금자리이다



파종-받아-번식(유성,무성)의 과정은 정원관리에 있어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만든 이

후지원 영감과 감동을 주는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 정원연구모임 '휴식원'
*휴식원은 생태정원을 지향하는 국립수목원의 연구모임입니다.

진혜영 회장, 이정희 총무, 김영재, 김윤하, 김채백, 남춘희, 문애라, 박완범, 박지수, 박혁용, 송유진, 이은주, 이혜진, 전윤창, 정재원, 정진아, 최우경 연구원





스페인의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의 정원



[TIP]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 (Real Monasterio de El Escorial)

과다라마 산 속에 세워진 웅장한 수도원으로, 스페인의 황금 시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

1557년 8월 10일 펠리페 2세가 프랑스와 첫 전투를 하던 날, 수호성자인 산 로렌조의 가호를 굳게 믿어 산 로렌조에게 바치는 수도원을 건립할 것을 맹세. 그 후 1563년부터 연인원 1500여 명이 동원돼 21년 만인 1584년에 완성되었다. 수도원은 폭 162m, 길이 207m, 안뜰 16개, 분수 89개, 1200여 개의 문, 2700여 개의 창문, 72m의 종루가 2개, 55m의 탑이 4개 등으로 되어 있으며 교회, 별궁, 왕궁의 영묘 등도 같이 있다. 3개의 예배당 중 주 예배당(Capilla Mayor) 천장에는 천사의 대관을 주제로 한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으며, 30m 높이의 대리석 제단과 이사벨 여왕상, 카를로스 5세 청동상이 있다.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으로 가는 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서쪽으로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인구 1만명 정도의 엘 에스코리알(El Escorial)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과다라마 산맥의 동쪽 기슭 해발 1030m의 고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숲으로 둘러싸인 유럽의 관광 피서지이다. 엘 에스코리알 기차역에서 버스를 타고 5분 정도 가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이 마을의 상징인 왕립 산 로렌소 데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Royal Monastery of San Lorenzo de El Escorial)이 나오는데 보통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이라 불린다. 마드리드에 있으면서 잠깐 시간이 남아 찾아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월요일인데 쉬는 날이었다. 상심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 밖에서 이곳 저곳의 정원이 다 보여 입장하지 않고도 정원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수도원의 규모에 비해 정원은 작은 편이지만 세계 유명 정원의 목록에 있을 만큼 인상적이었다.



World Cultural Heritage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은 수도원 뿐만 아니라 스페인 왕실의 궁전, 성당, 영묘,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페인의 황금시대, 펠리페 2세는 프랑스군을 격파한 1557년 8월 10일의 전승 기념으로 궁전 겸 수도원 건축을 계획하여 왕궁의 건축가에게 건축을 지시하였는데 1563년에 시작하여 1584년에 완성되었다. 순교자 산 로렌소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화형 도구였던 직사각형의 석쇠 모양으로 건물을 설계했다고 하는데 남북 207m, 동서 162m인 직사각형의 부지 위에 그라나다에서 운반해온 화강암을 쌓아올려 건축했다고 한다. 건물의 네 귀퉁이에는 커다란 탑을 세웠고 성당은 로마의 산피에트로 대성당을 본떠 가운데 높이가 약 90m에 이르는 둥근 천장이 있는 정사각형이다. 이전의 시대와는 달리 균형잡힌 기하학적 형태와 장식을 최대한 절제한 이 건축물은 반세기 이상 스페인 건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규모와 정밀도를 자랑하는 건축물로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수도원으로서 세계 여덟 번째의 규모인 이 건물 안에는 방 300개와 안뜰 16개, 회랑(cloister) 15개가 있다. 수도원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회랑은 '전도자들의 안뜰'을 둘러싸고 있는데, 상하 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도자들의 안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원식 안뜰 중 하나로 하얀 대리석으로 조각한 사도들의 동상이 서 있다. 정원은 '전도자들의 안뜰'에서 남쪽과 동쪽 앞뜰로 확장되어 있다. 수도원의 정원들은 한겨울에도 쾌적한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조성되어 있다. 이 수도원에는 1974년 창립된 산 로렌소 수도원 소년합창단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음악 교육을 받고 있고 수도원 내부의 카를로스 3세 왕립극장은 일류 예술가를 초청하여 많은 콘서트를 한다. 매년 8월 10일 산 로렌소의 날에는 성대한 행사와 투구가 거행된다. 인터넷 사이트(<http://www.sanlorenzoturismo.org/>)를 클릭하면 엘 에스코리알의 관광지로서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동영상이나 화면에 펼쳐지는데 왕궁과 수도원의 정원을 엿볼 수 있다.



The Convalescents' Gallery

정원을 사랑하는 펠립 2세는, 전문 정원사들을 불러 정원을 가꾸었는데 회양목으로 경계를 친 밝은 색깔의 화단은 "다마스쿠스에서 온 고급 양탄자"처럼 보였다. 오늘날에는 꽃없이 회양목을 교차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수도원을 둘러싸고 있는 왕의 개인적인 정원, 수도사의 정원, 요양 갤러리(The Convalescents' Gallery)와 같은 여러 정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무엇이
정원을
재미있게 만들까?

Ⅲ. 빛과 그림자 (Light and Shadow)



글, 사진 최지현 가든디자이너
가든스튜디오 알리움 대표
Writtle College, University of Essex MA
garden design.

[사진1. 나무그늘아래의 벤치, 테이블이 보인다. 이 곳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쉬 수 있다. Gravetye (2013, 영국)]



이번 달에 소개 할 정원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정원의 빛과 그림자(Light and Shadow)이다. 정원에서의 빛은 식물의 광합성을 가능하게 하고 그림자는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한다. 정원디자이너에서 빛과 그림자는 기능적인 측면과 미적인 측면에서 모두 고려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간단한 예는 나무 그림자 또는 정원 시설물 그림자, 즉 그늘에 쉴 수 있는 의자를 놓아두는 것이다. 정원을 둘러보다 혹은 가드닝에 지친 몸을 시원한 그늘아래에서 땀을 식힐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의자의 자리를 잡는다. 사진1.과 사진2.는 영국의 플라워가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로빈슨의 정원 그레이브타이(Gravetye)이다. 이 정원에서 보여준 그림자는 기능적인 면이 강했다.

사진1.과 같이 큰 나무 그늘아래 벤치와 테이블을 놓아 그레이브타이(Gravetye)를 찾아주신 손님들의 티테이블을 만들고, 식사도 가능하게 했다.



[사진2. 정원 한가운데에서도 그늘 아래에서 티타임을 갖게 해주었다. Gravetye (2013, 영국)]



[사진3. 철재 프레임의 온실과 그 그림자, Hidcote (2013, 영국)]

사진2. 와 같이 그늘이 부족한 곳에는 파라솔과 함께 테이블을 놓아 꽃에 둘러 쌓여 티타임을 가질 수 있게 하면서도 파라솔 그늘을 함께 제공한다.

시설물의 그늘 역시 기능적이면서 미적인 그늘을 만들어준다. 사진3. 과 같이 온실의 선이 굵은 철재 프레임은 그림자의 모습도 선명하게 담아낸다. 아래 비친 구조물의 그림자는 흰 바닥과 어우러져 그 자체가 아름답게 보인다.



[사진4. 등나무 피고라와 그 그림자, Hyland Park (2012,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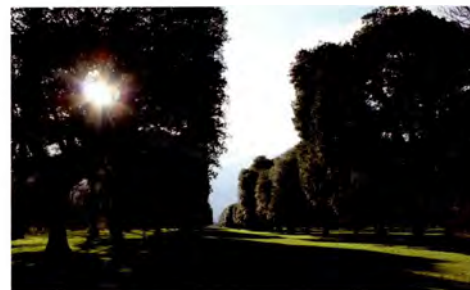
또한 사진4. 와 같이 피고라의 프레임 그림자와 식물, 등나무의 그림자가 함께 만든 자연스러운 터널의 그림자 또한 인상 깊다. 사진 3. 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밝은 색 바닥 면에서 진한 골격의 그림자가 더욱 선명하게 찍혀 아름다움이 배가 된다.



[사진6. 잔디에 비친 그림자, Hidcote (2013, 영국)]



[사진7. 잔디에 비친 그림자, Hidcote (2013, 영국)]



[사진8. 잔디에 비친 그림자, Kew Garden (2013, 영국)]

개인적으로 그림자가 초록의 잔디와 만났을 때의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는데 베스 샤프(Beth Chatto, 영국)의 정원에서 본 나무 그림자 때문이다. 이른 봄이어서 잎이 나지 않았지만 그 나무 가지가 초록의 잔디와 만나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냈다(사진5.). 초록색의 잔디에 비친 그림자는 심플하고 넓은 면적의 잔디정원을 전혀 밋밋하지 않고 재미있는 정원을 만들어낸다. (사진 6,7,8.) 같은 식물이라도 빛의 양과 그림자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내는데 바로 사진9. 가 그 예이다. 같은 식재 패턴이 반복되지만 멀리 보이는 그라스와 빨간색의 꽃은 영도가 밝아 더 연한 색을 띠는 반면에 그림자 아래에 같은 식물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 이처럼 빛의 양과 정원 시설물 그림자, 나무 그림자의 정원에 적용해보면 정원의 재미있는 요소 한가지를 더해 풍부한 정원이 만들어지므로 내 정원에도 적용해보면 좋을 듯 하다.



[사진9. 빛의 양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는 화단, Hidcote (2013, 영국)]

석축, 정원의 일부가 되다!

〈마케다의 정원〉
가든 디자이너, 김세경
<http://blog.naver.com/makedagarden>

▼ 아주가 *Ajuga reptans*



휴게라 *Heuchera Frosted violet*



휴게라 *Heuchera Frosted violet*



큰 평의 비름 *Sedum spectabile*

식물 & 돌의 "믹스 앤 매치"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많은 홈 인테리어 및 가드닝 TV 프로그램들을 즐겨 시청했다. 그 중 한 프로그램 인테리어 디자이너로부터 받은 가르침은 이후 나의 인테리어 스타일링과 가드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신이 집에서 가장 아끼고 당신의 취향을 잘 드러낸다고 여기는 물건 하나를 골라라. 그것이 쿠션이건, 패브릭이 덧대어진 행주이건, 스카프이건 상관없다. 이미 훌륭한 디자이너에 의해 조화롭게 만들어진 것이며, 그 안에 당신의 집에 필요한 색과 선과 질감이 포함되어 있다. 그 요소들을 믹스 앤 매치 한다면 인테리어 데커레이션에서 실패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원칙은 가드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건물의 외장재 및 선, 식물들이 자라야 할 장소의 위치, 형태, 색채와 질감 안에는 어떤 식물들이 그곳에 심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 한 예가 석축 식물이다.

큰 평의 비름 *Sedum spectabile*백두산 애기 기린초(*Sedum middendorffianum*)줄눈향 (*Juniperus chinensis* var. *asargentii* Henry)휴케라 *Heuchera Frosted violet*

석축정원의 질감과 색상을 살리는 디자인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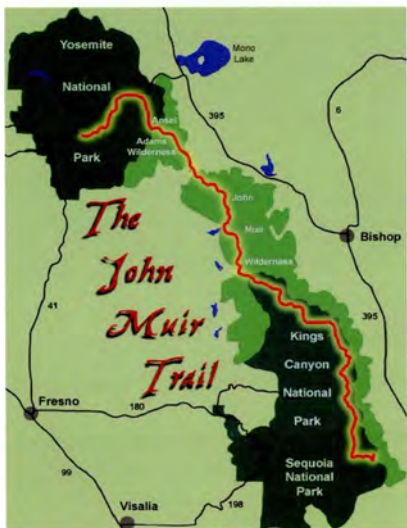
돌과 돌을 단단히 잡아주면서 미적 효과까지 내야 하는 석축 식물로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단연 철쭉이다. 철쭉이 아름다운 꽃나무이고 석축 식물로서 큰 실용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석축이라는 커다란 캔버스를 혼한 단일 식물로 메우기엔 아쉬운 점이 있다. 발파석 이진 자연석이건 돌이 가지고 있는 거친 질감, 흰색이 회색이나 갈색과 그라데이션을 이루며 만들어내는 색감은 이미 그 자체로서 훌륭한 요소들이다. 가든 디자인이 되는 이 요소들과 어울리는 석축 식물들을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화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잎이 큰 휴케라 *Heuchera Frosted violet*은 끈끈한 꽃대에 달린 작은 연분홍 꽃송이들도 아름답지만 햇빛이 섞인 자줏빛 잎들로 인해 석축의 아래쪽에 심었을 경우 구도적 안정감과 색채적 연계를 가져다주면서 동시에 포인트로서의 충실히 해낸다.

상록패랭이 *Dianthus chinensis* var. *serperflorens*호스타 월윈드 *Hosta Whirlwind*꽃진디 *Phlox subulata*줄눈향 (*Juniperus chinensis* var. *asargentii* Henry)

여기에 역시 자주색 잎을 가지면서 보라색 꽃을 피우는 아주가 *Ajuga reptans*는 휴케라와 크기 면에서는 대조를, 색채 면에서는 조화를 이루며 좋은 균형을 이룬다. 다양한 종류의 호스타 또한 휴케라와 함께 심기에 좋은 식재다. 호스타 월윈드 *Hosta Whirlwind*와 인디펜던스 *Hosta Independence*는 잎에 흰 무늬를 가지고 있어 돌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흰 곡선들과 잘 어우러지고, 크게 자라기 때문에 휴케라와 함께 석축 하단을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휴케라와 호스타의 풍성함과 호스타의 푸르름은 여름 장마에도 생존율이 높은 큰 평의 비름 *Sedum spectabile*과 매치될 때 효과가 크다.

존뮤어 트래킹에서 만난 정원 세계



글/사진 정수조경 정수진대표
서울시 강남구 물원동 146-10 tel. 02)2226-7515
www.jungsoowon.com

약 7년전 서점에 들렀다가 발견한 책 한 권을 사왔다.

"꿈의 트래킹, 존뮤어 트레일을 걷다."

워낙 트래킹도 좋아하지만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의 한국 사장을 약 20년 하면서 해보고 싶었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Sierra산맥중 제일 아름다운 루트를 1800년대에 John Muir라는 분이 개척하여 일컫는 약 380 킬로의 세계 3대 트래킹이다. 책을



John Muir

존 뮤어(1838~1914)

1838년 스코틀랜드 던바에서 태어나 1849년 미국으로 이주한 뒤 성인이 될 때까지 위스콘신 주의 킹스턴에서 살았다. 위스콘신 대학에서 몇 년간 공부하다가 인간이 만든 대학을 마치지 않고 29세에 접어든 1867년 '뿔뿔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자연이라는 대학'에 들어갔다. 1868년 네바다·유타·오리건·워싱턴·알래스카 등을 탐사여행하면서 빙하와 숲을 관찰한 뒤, 요세미티 계곡의 장관이 빙하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입증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존 뮤어 (해외저자사전, 2014. 5. 교보문고)

세계 3대 트레일

1.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순례자의 길)
2. 웨스트 코스트 트레일(The West Coast Trail)
3. 존뮤어 트레일(John Muir Trail)



Spiraea splendens Baumann ex K. Kock var

약 23일간의 대 장정이고 일단 시작해서 끝까지 하려면 중간 두 군데 식량 보급지에 식량을 보내놓고도 일주일간의 식량을 지고 텐트와 모든 짐을 가지고 떠나야 하기 때문 무게 때문 최소량의 쌀과 가벼운 밀반찬에 의존해야 하는 자기와의 고난을 견디는 여정이다. 유명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시작하여 3,000고봉을 10번 오르내리면서 마지막에는 북미에서는 제일 높은 휘트니산 4,400m에 올라 갔다가 내려가는 고난도코스이다. 시작 약 6개월전 입산 허가를 받아 제한된 인원만 입산하며 자연 보호가 그대로 되어 있는 곰과 각종 동물이 사는 동물의 세계로 초대되어 떠나는 산속 오지의 여정이기도 하다.

처음 며칠은 적응하느라 별 기억 나는 것이 없다. 다만 매일 저녁 텐트를 치고 저녁을 마친 후 잠자리 들기 전에 곰통(Bear canister)에 식량을 전부 넣고 텐트로부터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곰통을 옮겨 놓고 자야 하기 때문 곰 출현에 두려움에 익숙해져야 했다. 며칠이 지난 후부터 차츰 아름다운 경관이 눈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신비의 세계로 들어 간 것이 틀림 없었다. 약 4홀이 지난날 하루 종일 올라만 가야 하는 코스에 2500M 고지에 어두움이 짙은 밤 8시경되어 거대한 분지 속에 텐트를 치게 되었다.

어두운 밤이라 사진으로 기록을 남길 수 없는 게 무척 아쉬웠지만 내 일생에 가장 기억나는 밤이 되었다. 찬란한 밤하늘에 거대한 분지 속 위에 수천만 개의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인류의 인공 빛에 차단되고 드높은 산 위에 있는 분지가 만들어낸 그 밤 경관은 다시 못 보리라!



날이 갈수록 아름다운 경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매일 완전히 다른 색채 형 용의 아름다운 산들이 좌우로 나타나고 그 높은 곳에 호수도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 어떤 곳은 별명이 "천 개의 섬"이라는 호수도 나타났다. 완전히 고산과 매일 20~25Km 걷는데 적응되면서 서서히 자그마하고 큰 다양한 정원이 카베라에 잡히기 시작했다.

이 트랙킹 코스에서 나타나는 곳들은 계곡, 산, 호수, 목초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나타나는 다양한 정원들이다. 트랙킹 시점이 7월이어서 고산지대에서는 제 철을 맞은 야생화가 만발한 시점이라 더욱 아름다웠다. 어느 지점에 선가 한가지 작고 붉은색으로만 피는 지역이 계류와 만나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정원이 있었다. 언젠가 내게 정원을 꾸밀 기회가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해 보고 싶은 꿈을 그때부터 가져왔고 지금도 지니고 있다.

정원의 아름다움이란 영국식 다양한 꽃의 "코티지 가든"도 있으나 그 모습을 본 뒤로는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심플한 한가지 색으로 연출하는 정원이 내게 더 다가와 있다. 이 트랙킹이후 내 인생관이 바뀐 게 두 가지가 있다. 한가



Indian Paintbrush & Yarrow

지는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 종일 걷는 트랙킹인데 그 이외에 끼니당 간단한 밥을 해먹는 것이 한 시간가량 세 번을 밥과 간단한 반찬이 전부지만 사람에게 주어지는 먹는 시간이 의외로 많아 그 중요성이 각인되었다. 두 번 째는 관념이다. 한달 동안 그 안에 들어 가보니 돈 쓸 일이 한번도 없는데 매일 천국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자연이 주는 인간에게 위안, 기쁨, 평온함 등인데 정작 관념이 잘 못된 우리가 만들어낸 정원도 변변치 못한 곳에서 고난의 세계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가 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인생에서 가장 즐거울 때가 자연 속에서 보는 자연 그대로의 정원을 접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연에 가까운 정원 꾸미는 조경업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 것 같다.



Bush Monkeyflower



White and Red Mountain Heather



Hair Paintbrush, Castilleja pilosa



Shooting Stars above mesa lake



Phyllodoce breweri, Mountain Heather



Fussy Paws



Aquilegia formosa above Winnemucca lake



Aquilegia formosa above Winnemucca lake



정원으로의 여행 4



Hyland Hall □ Chelmsford에 있는 하이랜드 홀의 전경. 집 뒤면에는 여러 스타일의 정원들이 있고 앞쪽으로는 탁 트인 전경을 자랑한다.

정원의 스타일 I (전원 풍경이 있는 실외정원)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 주인이 원하는 정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야 계획을 할 수 있다. 모던인지 자연스러움이 강조된 정원인지. 지금까지 정원 스타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스타일 분석을 해 본다.



글 사진 가든디자이너 서수현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며 자신의 집안에 정원과 주변경관을 어우러지게 만드는 정원은 어떤 정원일까? 정원은 개인의 사유지에 만드는 것으로 개인의 취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떨어져있는 곳이 아닌 주변의 공간과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왔다.

서양에서 주변경관을 고려하며 정원을 만든 것은 이탈리아 노란식 정원이었다. 개인 사유지에 빌라를 만들며 차경수법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주변 경관을 빌려온다는 의미로 구릉지가 많은 환경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이탈리아의 계단식 정원에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18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자연풍경식 정원의 경우를 보면 하나의 풍경화를 보는 듯이 자연과 유사한 모습의 산책하기 좋은 정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영국의 전원풍경식 정원은 자연 그대로의 전원 풍경이라기 보다는 넓은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귀족이나 왕족들의 사유지에 만들어진 인위적인 정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평지가 펼쳐져 있는 환경적 특징을 보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릉지와 호수를 만들어 마치 숲 속을 걷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영국의 자연풍경식 정원은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healing(힐링)'이라는 단어와도 가장 잘 어울리는 정원인 것 같다.



Wallington Garden~ 울타리와 높은 담이 없는 넓은 대지는 지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듯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원주택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원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할까? 아직까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만들기 보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여러가지 꽃이 피는 식물이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장독대 혹은 취사시설을 만들기도 한다. 필요한 것 위주로 계획하다 보니 전체적인 통일성이나 컨셉을 맞추기 힘들어 질 때가 많다. 영국의 시골 풍경의 정원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정원을 만들까? '시골 혹은 전원 풍경'의 의미를 가진 장소는 지금 현재만의 장소가 아닌 역사를 간직하고 있거나 시간을 넘나들 듯 추억을 가져다 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영국에는 15세기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도 많을 뿐 아니라 실제 19세기 오래된 집인데도 조금씩 고쳐가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 이런 오래된 시골 집들은 정원도 이 집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보통 돈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오래된 집들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정원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정원의 특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변경관을 고려한다.

-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이 자신의 정원과 어우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연풍경식 정원에서는 주변과의 경계를 없애기 위해 '하하'라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는 자신의 땅의 경계에 울타리나 담을 얹고 땅을 깊게 파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땅만이 아닌 주변경관도 자신의 땅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함부로 침입을 하거나 동물들이 건너 다닐 수 없게 만드는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즐거움을 고려한다

-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장소라던지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는다. 바라만 보는 정원이 아니라 정원 안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테니스를 즐기거나 휴식을 할 수 있는 앉는 공간을 만들어 쉽게 정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3. 소박한 풍경을 나타낼 수 있는 소품들을 이용한다.

- 장식품은 정원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좀 더 그 정원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 주기도 하고 전원 주택과 정원의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따라서 소품을 고를 때는 자신이 만든 주택의 색과 스타일 등과 통일되거나 전원 스타일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대식의 건물에 조개가 없어진 정자를 가져다 놓으면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다.

4. 식물도 주변환경을 생각해서 고르면 더 좋다.

- 지금까지 정원에 심는 식물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구매를 하였는지 생각해 보자. 전원풍경에 맞는 식물은 그 지역에 환경에 잘 맞는 식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종을 함부로 실외정원에 쓸 경우 겨울에 견디지 못하거나 냉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년생 초본류를 제외하고 다년생 키울 경우 전원주택의 위치나 기후를 고려해서 겨울을 잘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식물을 선정할 후 정형식으로 일정하게 심어주는 것보다는 보다 자연스럽게 식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플러리아 정원

가드너 이진복 이용란 부부

글 사진 우정아

부부의 모습이 자연과 함께 담겨진 정원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이진복, 이용란 부부의 플러리아 정원은 100여 평에 부분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조성된 동화속 이야기가 담겨진 정원이다. 정원엔 100년이 된 산수유를 비롯해 소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수수꽃다리, 자두나무, 대추나무, 앵두나무, 보리수, 살구나무, 매실나무, 포도나무, 화살나무, 오미자, 장미, 조팝 등과 튤립, 작약, 나리, 으아리, 목화, 석산, 상사화, 매발톱, 금낭화, 금강초롱, 아주가, 옥잠화, 비비추, 수선화, 노루오줌, 무스카리, 바늘꽃, 풍접초, 붓꽃, 수련, 동굴레, 백리향, 꽃잔디 등과 다양한 다육식물이 식재되어 있는데, 대체로 키가 낮은 식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지금의 정원으로 조성된 것은 3년 전부터라고 한다. 돌아다니다가 예쁜 식물을 보면 하나 둘 사다 심다가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욕심이 생기면서 본격적인 정원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집 입구의 가든 게이트로 들어서면 여러 갈래의 길이 나오는데 길을 따라 화단으로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각 화단에는 소품과 조형물들이 식물과 함께 같은 느낌 다른 풍경을 이루고 있다. 철제 인형으로 꾸며진 화단에서는 엘리스와 토끼가 이상한 나라로 안내하는 듯하고, 토기와 깨진 항아리로 꾸며진 화단에서는 신선이 금도끼를 들고 나올 듯하다.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처음 정원을 조성할 당시에는 일반적인 식물의 대한 지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식재와 고사를 반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반복적인 실패는 각기 식물에 대한 특성을 공부하고, 경험하게 했으며, 점점 실패물은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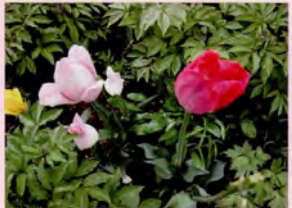
이 부부의 첫 번째 시행착오는 일반적인 정원 조성의 기초에 쓰이는 마사토에 있었다. 마사토는 세척을 하지 않고 사용하면, 굳어버리면서 물 빠짐이 어렵게 되고, 식물의 뿌리 내림이 어려워진다. 원인은 알게 된 주인장은 산에서 고운 부엽토를 채취하고, 부엽토에 퇴비를 섞어 마사토와 1:1로 섞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은 뿌리 내림이 좋고, 보비력, 보수력이 좋은, 즉 생육에 좋은 땅으로 재탄생 되었다고 한다.



이 부부의 첫 번째 시행착오는 일반적인 정원 조성의 기초에 쓰이는 마사토에 있었다. 마사토는 세척을 하지 않고 사용하면, 굳어버리면서 물 빠짐이 어렵게 되고, 식물의 뿌리 내림이 어려워진다. 원인은 알게 된 주인장은 산에서 고운 부엽토를 채취하고, 부엽토에 퇴비를 섞어 마사토와 1:1로 섞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은 뿌리 내림이 좋고, 보비력, 보수력이 좋은, 즉 생육에 좋은 땅으로 재탄생 되었다고 한다.

주인장이 직접 땅을 삼으로 파서 만든 연못은 처음 조성시에는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두 겹으로 놓고, 그 위에 보온덮개를 다시 깔고 자갈을 넣어 만들었는데, 비닐이 삭고, 물의 탁함이 심해서 견어내고 보온덮개 2겹, 두꺼운 방수포 위에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한 대리석 타일을 깔고 오버플로우 배관을 설치하면서 물의 탁함이 덜해졌고, 지인이 선물한 금붕어가 4년째 살고 있는 연못으로 변하게 되었다. 물의 탁함이 심한 여름에는 부유식물인 부레옥잠과 물배추를 이용하여 수질관리를 하며, 특히 물의 낙차가 부레옥잠의 번식을 활성화 시켜서 여름에는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부부의 일상이 머무는 정원의 터

하루의 대부분을 정원에 머무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하면서 정원의 관리는 일상의 전부가 될 정도로 정원에 대한 애착이 유별나다.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는 정원이라 늘 손이 많이 가지지만, 부인은 정원의 디자인과 일반적인 관리를 나누어 준비하며, 남편은 파고라, 울타리, 가든게이트 등의 구조물을 만들어 주고, 힘이 필요한 일은 도맡아서 하는 주인장들의 분업으로 정원은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있다고 한다.

정원의 관리는 겨울에는 따뜻한 낮에 하며, 봄 여름 가을은 땀을 피워 관리하고, 비료는 일반적인 퇴비에 흙을 섞어서 주며, 방제는 일년에 2번 정도 하고, 꽃이 지려고 할 시기와 실제로 해충이 보이면 방제를 한다 했다. 특히, 과실수의 꽃이 지는 시기는 중요한데, 수정할 시기에 들어간 해충이 열매 속에 숨어들어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정원은
우리 부부에게

또 다른 삶을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원은 꿈이고 희망이지요.
작년에 저는 생일 선물로 땀과 모양의
판석과 물확을 받았어요.
남편의 생일 선물로
목공 공구를 사서 썼어요.
이렇게 정원은 우리의 전부가 되었고,
평범한 일상으로 머물고 있으면서
늘 즐거움으로
커가고 있는 꿈나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수직정원

가정용 **타잔**

출시기념 특가판매

출시기념 특가

3 × 3구(400mm x 400mm)구성

홀더 9개, 철망, 상토, 홀더 망, 고정나사

~~49,000원~~ 20,000원

3 × 6구(400mm x 800mm)구성

홀더 18개, 철망, 상토, 홀더 망, 고정나사

~~70,000원~~ 35,000원

6 × 6 구(800mm x 800mm)구성

홀더 36개, 철망, 상토, 홀더 망, 고정나사

~~120,000원~~ 60,000원

위의 모든 제품은 배송비 및 부기세 별도 상품입니다.

기본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은 문의 후 추가구매

가정에서는 소량 구매 시 식물들 제외한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약 넓고 많은 수량을 할 때는 자동관수 등

의 추가 선택하시면 관리에

매우 편리 합니다.



타잔! 물감의 왕자!

이제 간단한 수직정원의
새 이름입니다.

50%
D.C

자! 준비 되었나?
순순~ 시작 해볼까?

핸드드라이버를 이용
박고! 박고! 박고!

준비된 타잔이 즐겁게 하듯
노래를 부르며

아~아~아~아~
걸어만 주면, 끝~

타잔의 효율적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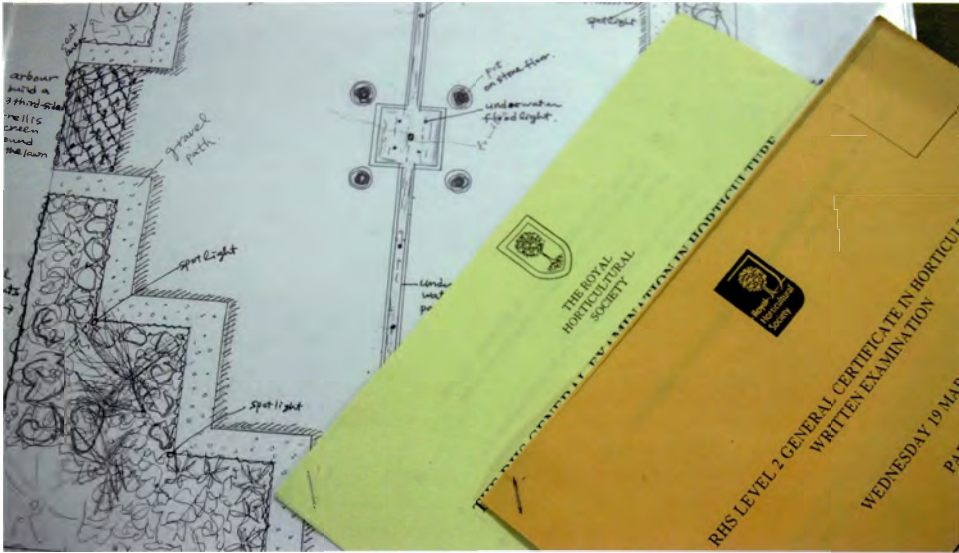
기본

- 언제 어디서나 걸어만 주면 되는 홀더
- 타잔인 노래를 부르듯 줄타기(디자인) 하는 철망 (철망을 부착할 수 있는 나사 및 토양 포함)

선택(상황과 개인의 성향에 따른 선택사항)

- 실내 수직정원을 가능케 하는 식물, 주로 관엽 식물(선택)
- 물을 간단하게 공급할 수 있는 관수 호스(선택)
- 물을 시간에 맞게 자동 공급하는 아쿠아프로(선택)
- 실내용 물받이(선택)
- 실내용 물통(선택)
- 실내용 관수펌프(선택)
- 실내용 마감재(선택)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해외정원디자인의 Summer Course 정보

영국 디자인학교의 정보를 본 후 가든인 독자에게 받은 질문은 짧은 기간 학습과 수료증을 얻는 기회는 없는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6월 가든인 정보에는 여름휴가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알찬 해외 정원교육 코스기회를 얻거나 여행중 전문가의 코치를 받으며 정원에 관하여 공부하는 기회를 얻는 다면 가장 좋은 기회일 것이다. 기본적인 언어 소통과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의 학생, 직업군에 알맞게 추천하고픈 코스이다. 그리고 더 짧은 기간동안 1일의 정원여행 코스는 각 지역마다 찾아보면 많은 기회를 얻는 수 있다. 휴가와 전문적 견문도 높은 이는 여름 휴가를 가든인 독자에게 기대한다.

RBGE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Certificate in Practical Horticulture (Summer School) *ILA

Main Address: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20A Inverleith Row, Edinburgh
City of Edinburgh EH3 5LR United Kingdom
Telephone: 44 (0)131 552 7171
Fax: 44 (0)131 248 2901
URL: www.rbge.org.uk
Primary Email: info@rbge.org.uk



기간: 2015. 7. 13 ~ 25 (10일간)
일시: 9:30 am-4:30 pm

장소: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Scotland
교육실습장: RBGE Nursery, Inverleith Avenue South
교육비: 500 파운드

교육 신청: www.rbge.org.uk/certph
약 10일간의 실습 교육기간 동안 원예의 주요 기술과 토양의 운영, 번식과 전정에 대한 강의
교육생 범위: 관심있는 아마추어 가든너, 직종의 변 career changers, 전문 원예, 조경 학생 그리고
RHS level 2를 실습과 자격증 준비자 등이 적합. 시험의 응시는 개인별 접수하면 된다.
코스 응모사이트: www.rbge.org.uk/certph.
코스 교육내용:

CPH01 Looking at Plants
CPH03 Feeding and Watering
CPH05 Vegetative Propagation
CPH07 Planting

CPH02 Soil Care
CPH04 Seed Propagation
CPH06 Growing Media and Potting
CPH08 Pruning and Training

Garden Tour/ The Laskett Herefordshire

Main Address: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20A Inverleith Row, Edinburgh
City of Edinburgh EH3 5LR United Kingdom
Telephone: 44 (0)131 552 7171
Fax: 44 (0)131 248 2901
URL: www.rbge.org.uk
Primary Email: info@rbge.org.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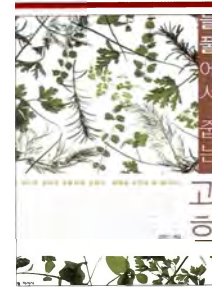
Summer short course date: 2015.
7. 3 (am 10:00~pm 4:00)
교육비용: 125 파운드
(정식식사 포함)

교육장소: herefordshire, UK ~ The Laskett Garden (designed by Sir Roy Strong) 그리고 주변의 2개 정원 방문 예정
교육 강사: Rosemary Alexander, The Lyndalls, Sollers Hope. : 약 5 에이커의 hidden Herefordshire Valleydpt의 창의적 개인 정원디자인을 만들어온 곳이다. 이곳은 혼혈정원의 정원배치가 크게 형성된 곳이다.



들판에서 줍는 과학

저자 : 김준민



나는 과학자들이 아직도 자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젊은 과학자들은 마치 인류가 이제 자연의 비밀을 대부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연은 결코 그리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다. 비단 오존층 파괴 문제가 아니라라도 들에 핀 꽃 한송이, 연못에서 헤엄치는 개구리 한 마리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기후변화? 우리 상식과 달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항상 궤도와 일정한 속도로 도는 것이 아니라 가뭄에 요동치면서 돈다. 이런 요동은 수천 년을 주기로 반복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축 위치가 변하고 지표면에 닿는 태양빛 양도 달라진다. 이런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빙하시대와 간빙기의 규칙적인 반복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최근의 과학적 설명이다!

세상은 겉에서 보이는 세계와 그 안쪽에 숨겨진 세계로 이루어져있다. 인류가 마치 지구의 주인인 양 도시와 도로를 건설하고, 아마존 삼림을 파괴하며,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서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고 있지만, 정작 이 지구의 물질순환계를 통제해 지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아늑한 환경을 제공하는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다. 바로 흙 속에 숨어있는 미생물들이다!

야외생물학연구실이 꼭 필요한 이유? 그런 야외생물학연구실이 없었기에 우리 생태계에는 어느 한 지역을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관찰한 연구가 아직까지 천무한 것이다



천리포수목원의 사계 정원소요

저자 : 이동협

한 남자가 자신의 순수한 열정을 모두 바친 천리포수목원으로의 산책!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수목원 천리포수목원의 이야기 『정원 소요 : 천리포수목원의 사계』, 최초의 귀화 남성인 민병일이 자신의 전 재산과 열정을 바쳐서 가꾸은 천리포수목원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6년의 변화 기록을 '꿈꾸는 정원사'로 불리는 이동협이 담았다. 한 개인의 소박한 의도에서 출발하여, 전 재산과 평생의 열정을 바친 순수한의 결정체 수목원의 생생한 모습이 사진과 함께 펼쳐진다.

1945년 처음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 미 육군 중위 칼 밀러는 1962년 서해 태안반도의 천리포 바닷가 구석진 땅 6천 평을 사게 된다. 그는 70년에 처음으로 해풍을 막기 위해 소나무를 심는다. 미국 남성인 칼 밀러 중위는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최초의 귀화 남성인 한국인 민병일이 된다. 그가 작은 규모의 농원을 천리포수목원으로 가꾸었고, 천리포수목원은 식물원, 수목원 조성이라는 녹색 문화사업의 표본이 되었다.

저자 이동협은 101번의 취재를 거쳐 수목원의 곳곳을 담아냈다. 생기 넘치는 피어리스의 꽃보다 더 아름다운 새 잎, 예상치 못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품종형 무궁화, 단풍잎 가득한 쪽빛으로 곱게 물든 10월의 정원까지 정원을 산책하는 듯 생생한 사진과 서정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목련, 호랑가시, 동백 등 다양한 개체 확보로 세계 수목학회와 미국 호랑가시학회로부터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천리포의 정원을 만나자.

PPT, 기업 홍보물, 단체 홍보물, 현수막, 배너 디자인 인쇄 - 워킹카우42



Book, Magazine, Catalog, leaflet Design & Printing

견적및 상담 문의 전화 : 070-8956-4288, 010-7399-5488

10%
~20%
OFF 인하

정기구독 안내

[구입처]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광화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멀티플렉스 2층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지하1,2층
목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지하 1층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 캐슬프라자 지하1층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터타워 지하 1층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1 부천역사 7층
안양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CGV 1번가 5,6층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퍼스트타워 지하1층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3층
대구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86 교보생명빌딩 지하1층
센텀시티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 센텀시티 5층
부산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창원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이우스 빌딩 지하1층
영풍문고 잠실점, 영광도서관(부산), 남포문고(부산), 독산문고(수원)

온라인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알라딘 www.aladin.co.kr

[입금방법]

카드 결제 및 문의사항 : 031-712-7009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55-0030-2359-03

▶ 입금 후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정기구독방법]

1년 16.6% 할인(100,000원)

2년 20% 할인(192,000원)

Gardenin

발행행인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 농학박사
박공영 우리씨드(Uniseed)그룹 대표 이학박사
고문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이명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성미로 924번길 87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전문위원 김광두 농학박사 / 前상명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준 대림원예종묘(주)대표
김귀순 (주)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유봉수 솔개그늘 대표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교수
윤평섭 농학박사 / 상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농학박사 / 前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중석 농학박사 /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권 농학박사

디자인&인쇄 워킹카우42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5488



(주)한국원예자재

June 6월 원예작물재배 필수상품



1. 채소나 과일이 분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더욱 좋게합니다.
2.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으개어 만든 어류 엑기스입니다.
3. 동물성 아미노산이 풍부 들어있는 친환경 비료입니다.
4. 꽃색이 선명해지고 향이 더욱 진해집니다.
5. 빠르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잔뿌리의 수가 증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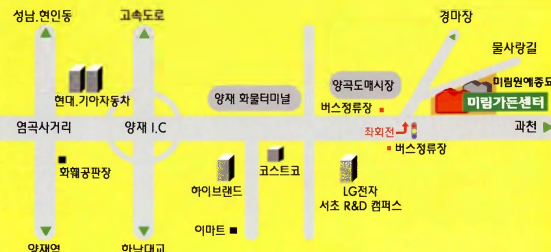
미림가든센터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257 (주암동)

Tel. (02)585-5346, 503-7080

Fax. (02)3473-8989

미림가든센터 shop 조이가든
검색창에 '조이가든' 검색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중부·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어행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수도권의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칼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후 회복과 건강 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삶의 무게를 느낀다면 **단언컨데 온천욕은 가장 완벽한 힐링**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시간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앞에서
테르메덴 무료 셔틀버스 이용(약 15분 소요) → 이천 테르메덴 도착

구분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테르메덴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출발)	테르메덴 → 이천터미널 (테르메덴 본관 앞 출발)
매일 (월~일)	08:20 09:20 10:20 11:20 13:00 14:20 15:20	12:40 14:00 15:00 17:30 18:30 19:30

* 한차 및 도로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에이케이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문의 : 031)645-2000